

전 세계가 주목하는 2월 5일 JY 선고심... 운명의 갈림길

총수공백 1년... 서서히 드러나는 삼성의 경고음

- 1 글로벌 협력서 소외
- 2 대형 M&A 올스름
- 3 中·인도시장서 고전
- 4 차세대 먹거리 부재

삼성 운명 가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월 5일 열린다.

삼성은 지난해 2월 17일 이 부회장이 구속된 후 구심점을 잃고 비상경영체제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단일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의 50조 시대를 열었지만, 올해엔 투자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실적을 이끈 반도체 가격의 고점 논란, 중국·인도 등에서의 휴대폰 사업 고전, 미래 먹거리 부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미래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2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삼성전자 내부의



삼성의 운명 가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월 5일 열린다.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운명의 2월'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의 길어지는 와병에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총수 없이 1년여의 시간을 보낸 삼성이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다.

삼성전자가 절감하는 최대 고민은 미래 먹거리다. 'CES 2018'에서 이 같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CES는 세계 전자업계 수장들이 모여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지만 이

부회장은 5년 연속 CES에 불참했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협업체계를 굳히고 있다. 이번 CES에서만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블로트퓨터와 협업해 개발한 무인헬기를 선보였고, 엔비디아는 폴크스바겐 등 자동차 업체들과의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신사업 진출 발표나 대규모 투자 소식은 없었다.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사업 사장은 CES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부재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경영자들과의 교류도 중단됐다. 이 부회장은 중국에서 매년 열리는 바이오포럼에 자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임이사직을 내려놨으며, 15년간 빠짐없이 참석했던 ICT 최고경영자들의 모임인 '선벨리 콘퍼런스'에서도 못가고 있다.

대형 인수합병도 중단된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미국 전장장비 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 외에는 굵직한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50조 시대를 열었지만 앞으로의 경영환경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최고 실적을 이끌었던 메모리 반도체는 고점 논란을 겪고 있다. 올해까지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이후엔 정체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지배적이다.

스마트폰 판매량도 감소 추세다. 중저가 스마트폰의 주요 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등에 빼앗긴 탓이다. 휴대폰은 이미 시장이 포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투자 계획도 미정이다. 삼성전자는 새해 첫 실적발표에서 한해 투자 계획을 알려주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

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지 못했다. 지난해 40조원 이상을 시설 투자한 영향도 있지만, 총수 부재 속에서 전문경영인들이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가 절대적인 삼성전자는 집행유예를 통해서라도 총수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강하다.

1심에 이어 2심에도 중형 선고가 내려져 이 부회장 석방이 무산될 경우 삼성의 리더십 공백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외신 역시 삼성의 글로벌 리더십도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효과적으로 지휘해왔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기간이 길어질 경우 '리더십 공백' '리더십 부재'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육중 경영'으로 총수 부재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경영 일선에 있을 때에 비해 한계는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금감원이 연 판도라의 상자... 채용비리나 정상절차나

하나·국민·부산·광주·대구 고발 연루된 은행들 해명 등 혐의 부인 CEO·부정합격자 거취 수면 위로

은행권의 심각한 채용 비리 민낯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후 은행명과 CEO 실명 등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CEO 거취, 부정합격자 처리 문제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국민·부산·광주·대구銀... "채용과정 문제없어"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까지 은행권 현장 검사를 한 결과, 채용비리 혐의가 포착된 국민·하나·광주·부산·대구은행 등 은행 5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채용비리 사례는 모두 22건이다. 하나은행이 13건으로 제일 많았고 국민은행 3건, 대구은행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 등이다.

전날 심상정 의원실 등을 통해 채용비리 혐의가 적발된 은행명이 밝혀지며 논란이 커지자, 해당 은행들은 보도자료와 공식해명 등을 통해 "채용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은행은 현 CEO인 윤종규 KB



(왼쪽부터)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JB금융지주(광주은행) 본점. /각사

<은행별 채용비리 사례>

은행	내용	건수
하나	채용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6
	특정대학 출신 합격위반 조작	7
국민	채용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3
대구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3
부산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2
광주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1

/자료=심상정 의원실 등

윤지주 회장이 연루됐다. 그의 조카는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서류전형과 1차 면접 모두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2차 면접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

이에 국민은행 측은 "채용과 관련해 논

란이 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됐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016년 한 사외이사와 관련된 지원자가 필기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 수준의 점수를 받아 '글로벌 우대' 전형을 새로 만든 특혜채용 정황이 드러났다. 특정 대학교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 점수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특정인을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정할 바 없다"며 "입점대학 및 주요거래대학 출신을 채용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광주은행은 2015년 인사담당 부회장보가 자녀의 2차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은행 측은 "은행 내부에서 이 사실을 채용절차가 끝난 이후 인지해 당사자인 임원과 인사담당 부장은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당시 합격한 임원의 자녀는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대구은행과 부산은행도 전국회의원 자녀, 은행 임직원과 관련이 있는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로 채용을 진행했다"며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해명 자료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CEO·부정합격자 거취는?

주요 은행들의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해당 은행 CEO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 당국이 채용비리가 적

발된 은행에 대해 기관장 해임 권고 등 엄중 처벌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 금융권 일각에서는 윤 회장 외 직접 연루되지 않은 CEO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시점을 감안하면 당시 광주은행장을 겸임했던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을 비롯해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도 징계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광주 전 우리은행장은 채용비리가 불거진 지 2주일 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한 바 있다.

노조의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최고경영진이 직접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점수까지 조작해 죄가 매우 엄중하다"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CEO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윤종규 회장 출근 저지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하나은행 노조도 사외이사 관련 특혜채용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부정합격자에 대한 사후 조치도 문제다. 현재 은행권에는 부정 합격자에 대한 내규가 대부분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부정입사자에 대한 관련 내규가 없다"면서도 "다만 이번엔 언론에서 부정입사자의 출신과 성(姓)이 밝혀졌고, 사회적 파문도 커서 입사 취소 등 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KT&G, 지난해 해외 매출 1조 돌파... 사상 최대 실적

KT&G는 지난해 해외 매출이 1조482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수출 및 해외법인 연결 기준으로, 2016년의 해외 매출액 9414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해외 판매량도 수출량과 해외

법인 판매량을 합산해 554억개비를 돌파하며, 2016년의 487억개비를 추월한 역대 최고 수량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 1988년 수출을 시작한 KT&G는 이제 50여개국에 진출한 '세계 5위'의 글로벌 담배 기업이 됐다. 1999년 당시 26억 개비에 불과하던 해외 판매량은 18년 만

에 20배 이상 성장했다. 해외 시장에서의 이러한 성과는 국내 담배시장 개방 이후 다국적 기업들의 거센 공세를 방어하며 30여년간 축적한 품질 우선경영과 마케팅 역량에 기반했다는 평가다.

그간 KT&G는 주력 시장인 러시아와 중동 등에서 '에세(ESSE)'와 '파인(PIN

E)' 등의 브랜드를 앞세워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현지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며 판로를 확대해왔다. KT&G는 발 빠른 제품 공급을 위해 러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에 현지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KT&G는 '국내담배', '해외담배', '홍삼'의 3개 사업부문에서 모두 매출 1조원을 돌파해, 국내외로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

이날 KT&G는 주주 이익 환원 차원에

서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3600원에서 4000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1% 인상된 금액이다.

백복인 KT&G 사장은 "계속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화강세 등 불리한 수출환경 속에서 해외 매출 1조원을 달성해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사업 성장성을 제고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가상화폐 ‘채굴’ 열풍에 그래픽카드만 ‘金값’

23만원 제품이 100만원 넘어
AMD ‘RX580’ 모델 품귀현상
가상화폐 채굴 판매 수요도 늘어

그래픽카드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가상화폐 채굴 수요가 계속 늘어난 탓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제조사 출시 가격이 20만원대던 그래픽카드 가격이 소매상에서는 100만원을 넘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AMD는 그래픽카드 라데온 RX580을 선보이며 레퍼런스 모델을 선보였다. 레퍼런스 모델이란 AMD, 엔비디아 등 그래픽처리장치(GPU) 생산업체가 직접 제작한 완제품이다. AMD는 RX580 8GB 메모리 레퍼런스 모델을 229달러(약 23만원)에 출시했다.

사파이어, 기가바이트, MSI, XFX, 파워컬러 등 그래픽카드 공급업체들은 레퍼런스 모델을 기반으로 각자 성능을 끌어올린 제품들을 선보인다. 두 종류의 제품 간 차이는 크지 않지만 레퍼런스 모델은 수량이 제한적이기에 소비자들이 접



가상화폐 채굴기에 다량의 그래픽카드가 사용되며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메이스트룩 캡처

하는 그래픽카드는 대부분 공급업체들이 생산한 물건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공급업체들이 판매하는 비레퍼런스 제품도 국내 도입 당시 30만원대 가격을 유지했다. 지난해 4월 기준 기가바이트의 ‘라데온 RX580 XTR AORUS D5 8GB’ 제품의 국내 판매 가격은 34만원이었고 사파이어의 ‘라데온 RX580 NITRO+ 리미티드 에디션 OC D5 8GB Dual-X’ 국내 판매가는 37만원

이었다.

그러나 현재 두 제품의 가격은 각각 130만원, 99만원이다. 국내 가격이 36만원이던 파워컬러의 ‘라데온 RX 580 D 5 8GB 붉은악마 디앤디컴’은 두 달여 만에 210만원이 됐다. 이마저도 유일한 판매업체가 출고일을 정하지 않은 예약 구매로 지정해 사실상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

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제품을 품절시키고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AMD의 RX580은 출시된 지 1년이 안 됐음에도 대부분의 공급업체 모델이 단종된 상태다. 이미 높아진 가격에 웃돈을 얹어도 일반 소비자는 구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래픽카드 품귀는 가상화폐를 채굴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는 통상 거래소에서 유통되지만 금광에서 금을 직접 캐내듯 ‘채굴’할 수도 있다. 암호화된 수식을 계산하는 과정에 자신의 PC를 참여시키면 그 기여분 만큼의 보상을 받는 식이다. 최근 다양한 가상화폐가 생겨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판매하려는 수요도 늘어났다. 정부 규제로 가상화폐 거래가 위축됐지만 채굴 열풍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제품을 구하지 못해 전장상가를 찾는 소비자도 있지만 웃돈을 얹어주더라도 물건은 구할 수 없다”며 “채굴업체들이 이미 선금을 내고 국내 공급 물량을 전부 가져가는 상황이기에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탐내지 않는 보급형

제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9일 들어오는 그래픽카드를 웃돈을 얹은 가격에 공급해주기로 채굴업자와 계약하고 선금 1억원을 받았지만 아직 가져다주지 못했다. 더 비싼 가격을 부른 채굴업자에게 물량이 갖기 때문”이라면서 “업체들도 서로 경쟁이 붙어 제품을 못 구하는 상황에 일반 소비자에게 갈 물건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채굴업체들이 외면한 보급형 그래픽카드를 써야 할 처지다. 성능이 낮아 채굴업체들이 외면한 제품들인 만큼 최신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없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는 탓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기도 한다. 최근 일본 여행을 다녀온 김건후(29)씨는 “일본의 그래픽카드 판매 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해 여행을 하는 김에 그래픽카드도 장만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 국내 A/S가 되지 않아 고장이 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완성車업계, 새 프로모션으로 내수 선전... 무술년 ‘술~술’ 풀리나

현대차, 내수판매 14.0% 증가
한국지엠, 크루즈 외 모두 부진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지난 1월 한 달간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침체된 내수 시장 분위기를 반등시켰다. 다만 한국지엠은 연초부터 내수와 수출 모두 고전하는 모습이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내수 5만1426대, 해외 28만 2791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총 33만4217대를 판매했다. 내수 판매는 14.0% 증가했으나 해외 판매가 3.8% 줄었다.

내수 시장에서는 그랜저(하이브리드 1939대 포함)가 9601대 판매되며 국내 시장 판매를 이끌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아이오닉 EV는 1086대가 팔리며 2016년 12월(1184대)에 이후 달성하지 못했던 전기차 월 1000대 판매 돌파 기록을 달성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가

4047대, G70가 1418대, EQ900가 939대 판매되는 등 52.7% 증가한 6404대가 판매됐다.

해외 판매는 중국 시장 부진의 영향이 컸다. 해외에서 총 28만2791대를 판매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 여파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월과 비교해 3.8% 감소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국내 3만9105대, 해외 16만6021대 등 총 20만5126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총 판매량은 5.2% 늘었다. 기아차의 국내 판매는 지난

해보다 11.7% 증가했다. 설 연휴가 1월에 있었던 지난해 대비 근무일수 증가했고, 지난해 초에는 판매되지 않았던 ‘스팅어’와 ‘스토닉’ 등 신차 효과를 크게 누렸다. 또 기아차가 지난 7월 선보인 쏘렌토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며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한 5906대가 판매했다.

해외에서는 스포티지, 카니발, 쏘울 등 일부 SUV(다목적스포츠차량) 차종의 판매가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대비해 스팅어와 스토닉 등 신규 차종이 추가됐고 중국, 러시아, 멕시코 등에서 주력 차종의 신형 모델이 투입되며 전체적인 판매는 늘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달 내수 6402대, 수출 1만5445대를 포함해 전년 동월과 비교해 7.9% 증가한 총 2만1847대를 판매했다. 르노삼성 내수 주축인 QM6와 SM6는 각각 2162대, 1856대가 판매했다. 특히 QM6는 가솔린 모델이 1383대가 팔리며 경쟁 신차 출시 압박 소식에도 견실한 실적을 유지했다고 회사측은 설명

했다.

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SM5는 933대로 전년 동월보다 3배 가까운(185.3%) 판매 증가를 보였다. QM3는 물량 부족을 겪은 전년 1월과 비교해 243.2%가 늘어난 659대가 판매했다.

르노삼성의 지난달 수출은 북미 인기 차종인 닛산 로그가 전년 동기보다 20% 늘어나 총 1만3055대가 선적됐다. QM6(수출명 폴레오스)는 전년 동월대비 57.2%가 증가한 2390대를 해외에 판매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내수 7675대, 수출 2530대를 포함 총 1만2055대를 판매했다. 내수 판매는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줄어들었다. 내수 판매는 렉스턴 스포츠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했다. 1월 기준으로 2004년(8575대) 이후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쌍용차의 내수 판매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출시된 렉

스턴 스포츠는 1월 말 기준으로 계약대수가 9000대를 넘어서면서 출시 초기부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현재 쌍용차의 베스트 셀러인 티볼리가 출시 첫 달 4200대가 넘는 계약을 올린 것과 비교해도 초기 계약물량이 2배가 넘는 기록적인 수치이다.

수출실적은 글로벌 시장 침체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7% 감소했지만 G4 렉스턴의 글로벌 출시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에서 7844대, 수출 3만4557대 등 총 4만2401대를 판매했다. 한국지엠의 1월 내수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2.6% 감소했다. 인기 모델인 말리부 판매량이 반토막났다. 다만 크루즈가 487대 판매, 전년 대비 112.7%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출도 1.8% 줄었다. 소형차와 준중형차, 중대형차 수출은 증가했지만 판매 주력인 경차와 RV 수출이 소폭감소해 전체 수출량은 감소했다.

/양성운 기자 ysw@

홈플러스, 계약직 → 정규직 전환 기회 ‘대폭 확대’

홈플러스가 마트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대폭 넓힌다.

홈플러스스토어즈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1일 국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직원 중 희망자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아 ‘2018년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에 최종 합의했다. 또 유통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적 노사문화 창달과 노사간 화합을 위한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 임단협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

됐다.

노사간 합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마트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다.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만 12년 이상 근속(2005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 직원 중 본인 희망자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는 국내 대형마트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 제도다. 그동안 일정기간 이상(16개월) 근무한 비정규직 사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던 인사제도보다 한 단계 더 향상된 정규직 전환 정책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양한 인사제도를 펼쳐왔다.

관련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24개월보다 8개월 단축된 16개월 근속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근속 기준을 법령의 절반 수준인 12개월로 단축시켰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 합의는 홈플러스의 정규직 전환 노력의 연장선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부응하자는 노사간의 공감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정규직 전환 제도를 위한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인사제도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정규직으로 발탁되는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과 직책을 부여 받고 동일한 승진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1일 홈플러스 본사에서 (왼쪽부터)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대표이사 사장과 이종성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님이 2018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홈플러스

급여 역시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의 초임 연봉을 적용 받고, 모든 복리후생 역시 선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7월에는 기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 중 약 20% 이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임금 협상 역시 고용노동부가 추구하고 있는 양보와 대화를 통한 노사간 합의의 정부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식의 인위적인 개편 없는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 임금을 인상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당신에게도
너무우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201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2018년 1월 24일(수) ~ 2018년 2월 13일(화)

한양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 go.hycu.ac.kr | 문의전화 : 02)2290-0082



인문사회 계열

상담심리학부(상담심리학과, 미술치료학과, 청소년상담학과), 아동학과, 교육공학과,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시설경영전공, 사회복지서비스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 보건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부(경영정보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마케팅학과, 서비스생산물류학과, 인사조직·전략벤처학과, 재무회계세무학과), 경제금융학과, 광고미디어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관광호텔경영학과,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실버산업학과

공학계열

컴퓨터·정보보호공학부(컴퓨터공학과, 해킹보안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전기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제어공학전공, 자동차IT융합공학전공),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디자인 계열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뉴미디어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기획전공)

외국인의 韓 주식 사랑, 이면엔 원高... 문제는 핫머니 유입

달러의 힘, 新통화전쟁

환율하락과 외국인

시장 출렁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新성장모델'·'체질개선' 필요성

“홍콩에 투자처를 둔 몇몇 외국계 핫머니들이 한국시장을 사냥터로 삼고 있다. 환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외국계 IB 고위 관계자)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사랑이 높다. 올해 들어서만 1조9756억원이 넘는 뭉치돈을 쏟아 부었다. 북핵 리스크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방증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환경과 외환시세 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차익거래) 성격의 투자가 많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미국발 통화전쟁의 파장이 커진다면 금융시장도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원화값이 떨어진다면 한국 경제의 베타목인 수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한국시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발길을 돌리려면 '새로운 성장모델'과 '체질 개선'을 통해 한국 경제를 한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08(0.08%) 오른 2,568.54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고 조언한다.

◆환율과 외국인의 불편한 동

외국인이 원화값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1월 한달간 1조975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외국인이 언제까지 한국 주식을 살까. 증권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 1150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1150원을 넘어가면 차익실현 물량을 쏟아냈다.

구간별 순매매 규모를 보면 외국인은 1100~1150원 구간에서 35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1150~1200원 구간에서는 13조9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또 2013년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제)이 두드러진 여섯 차례 구간

에선 2015년 9~10월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최근 증시에서 가장 핫 한 이슈 중 하나가 환율이다. 원화값이 강세면 외국인 자금유입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도 외국인은 환율에 민감하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지수의 상관관계는 -0.41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달러 약세, 원화 강제)할수록 코스피지수가 오르는 얘기다. 상관관계는 -1에서 1까지 나타나는데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없다.

미래셋대우 고승희 연구원은 “국내 증시도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며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증

시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환율 하락도 지나치면 독이다. 2001년 이후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 1050원 이하에서 순매도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최광혁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익은 환율 수준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면서 “실제로 환율 구간별 외국인 순매수 대금을 살펴보면 2008년 이전에는 원·달러 환율 1050원 미만에서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였지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액은 9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89조3000억 원)보다 9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외국인의 원화 채권 순매수 규모도 2016년 12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36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단기 핫머니 경계해야

외국인 매수에 대한 경계를 늦추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글로벌 자금시장이 조금이라도 경직되면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는 등 한국이 현금자동인출기(ATM)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금융위기(258억달러 이탈)는 우리에게 적잖은 교훈을 준다.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은 “외국

인의 원화채권 투자가 대부분 만기 3년 이하의 단기채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1월 15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5조 1000억원인데 이중 3년 이하 채권 비중이 무려 9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보유채권 듀레이션도 축소 추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환율의 하락 여지가 존재하나 점차 강화될 미 연준의 긴축 기조를 고려하면 원·달러환율의 반등 리스크도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유동성을 붙잡아 둘 ‘풀 팩터(Pull factor·흡인요인)’도 약하다.

대내적으로는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매도할 때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면 매각금액의 11% 또는 매각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양도세 규정은 그동안 상장 주식 25%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적용해왔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외국인 투자가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세 조약이 체결된 대부분 국가에서는 거주지 과세가 원칙”이라며 “시행령 개정은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일부 국가에 관한 것들이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한국암웨이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전방위적 고객 점접 강화

한국암웨이가 조직 역량 강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한국암웨이는 중장기 미래 사업 전략인 ‘암웨이 넥스트(Amway Next)’의 일환으로 2018년 조직개편 및 주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영업조직의 맞춤형 컨설팅과 더불어 전방위 고객 점접 강화로 꼽힌다. 체계화된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사업자 대상 개인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며, 암웨이플라자 등 오프라인 체험 부서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영업조직 안에 유기적으로 통합되며 온·오프라인 고객 접점이 강화된다.

강화된 영업 및 영업지원 조직은 신입 최고영업책임자(CSO)를 통해 전략적으로 통합 관리된다. 기존 영업 담당 임원이었던 마이크 김 상무이사(전무이사)가 승진하며 이 역할을 맡게 됐다. 김 전무는 인사 컨설팅 분야 전문가로, 2012년 한국암웨이에 합류한 이후 인사 총무 임원과 영업 전략기획 임원을 거치며 성장 전략 수립, 사업자 관계 개선 측면에서 성과를 인정 받았다.

기존 전략기획 담당 임원이었던 문수진 상무이사 역시 전무이사로 승진하며 영업 조직에 합류한다. 공학박사 출신인 문 전무는 기존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했던 기획, 영업 및 마케팅, R&D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2017년 입사 이후 전략 혁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한편 문수진 전무와 더불어 마케팅 담당 임원인 김은아 이사가 상무이사로 승진하고, 인사·총무 담당 임원인 박진숙 상무이사가 전무이사로 승진하는 등 여성 임원들의 약진 또한 눈에 띈다. 한국암웨이의 여성임원 비율은 50%에 달하는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DNA가 원만하게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0대 임원 중 하나인 법무 담당 임원 이준범 상무이사가 전무이사로 승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축법, 무작정 관치 취급해선 안돼”

금리 인상기 한계기업 증가 우려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유용 수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축법)은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축법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기축법은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2001년 제정돼 한시적으로 적용·유예돼 왔다. 올해 6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기축법의 공과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는데 시간을 되돌려 기축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급격한 부도를 맞고, 대출한 채권 단들도 동반 부실화해 국가 경제 전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에 큰 충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축법에 대한 관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겠지만 위기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

도적 틀을 만드는 것을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이제는 기축법이 채권자 평등, 기업의 사적 자치 권리 보장에 부합하고 오히려 관치적 요소가 많이 희석됐다고 보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기축

법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약속 규범이자 절차법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 인상기에 한계기업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기축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시중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기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한계기업 수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축법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채권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투입된 채권의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에만 집착해선 안된다는 뜻에서도.

그는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채권은행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며 “채권은행은 기업의 혁신과 재기를 지원하는 도우미로서의 역할, 구조조정 시장의 마켓메이커(Market maker)로서의 역할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운영·주주 의결권 행사 활성화

>> 1면 ‘슈퍼 주총데이...’서 계속

TF,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 실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회사 자율로 정하고 결산기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주총 소집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것. 이익배당기준일도 영업연도 말일부터 배당일 전일 중 하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가 주관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회가 집중 예상일을 선정해 사전에 안내하면 상장사들은 이사회 결의 전

주총 개최 예정일자를 2월 2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주총 예상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홈페이지를 만들고, 동일 날짜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 수가 200개를 초과하면 협회가 분산을 유도한다. 만일 상장사가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주총 2주 전에 그 사유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불성실공시 별첨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1년간 30%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

정이다.

TF는 또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도 실시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새도보팅 제도가 작년 말 일몰되면서 기업은 좀 더 많은 주주를 주총에 참석시켜야 하는 상황이 직면했다”며 “이번 주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슈퍼 주총데이가 해소되고 2%에 머물던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폭스바겐, ‘파사트 GT’로 컴백... “중형세단 시장 접수”

‘MQB 플랫폼’ 기반 디젤 모델
보행자모니터 등 최신키텐 탑재
총 6개 색상... 4320만원부터



Volkswagen



폭스바겐코리아가 새롭게 선보인 신형 파사트 GT를 소개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가 2년 여의 공백기를 깨고 한국 시장에 복귀를 선언했다. 첫 스타트는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신형 파사트 GT다.

폭스바겐코리아는 1일 신형 파사트GT를 출시하고 국내 판매가격을 공개했다. 중형 세단 파사트는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차다. 신형 파사트 GT는 디젤 모델로 출시되며 MQB 플랫폼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롭게 개발됐다. 특히 최신 편의기술을 대거 장착했다.

신형 파사트 GT는 전세대 파사트 대비 휠베이스가 74mm가 늘어나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으며, 특히 40mm 늘어난 뒷좌석 레그룸은 역대 파사트 가운데 가장 넓

어졌다.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 및 편의사양도 대거 탑재됐다. 차로나 도로의 가장자리에 있는 보행자를 감지할 경우 가벼운 브레이크 조작과 함께 시청각적 신호로 운전자가 전방 상황을 체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시스템인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정체 상태에서도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한 채 정속 주행을 보조해주는 ‘트래픽 잼 어시스트’ 기능이 국내 출시 폭스바겐 모델 중 최초로 탑재됐다.

이 외에도 ‘프론트 어시스트’, ‘도심 긴급 제동 시스템’, ‘레인 어시스트’, ‘피로 경고 시스템’ 등 최신 안전기술들이 다양하게 적용됐다.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선루프, 앞좌석 통풍 및 히팅 시트, 스티어링 휠 히팅 기능, 3존 클리마트로닉, 360도 에어리어 뷰 등 최신 편의 기능이 라인업 별로 적용된다.

전체 라인업에 탑재된 1968cc TDI 엔진은 최고출력 190마력(3500~4000rpm)과 최대토크 40.8kg·m이다. 정지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제로백)은 7.9초이며, 최고 속도는 233km/h다. 공인 연비는 15.1km/L(도심 13.7km/L, 고속 17.2km/L)이다.

트립별 가격은 2.0 TDI 기본형 4320만원, 프리미엄 4610만원, 프레스티지 4990만원이다. 4개 트림에는 모두 2.0L 디젤 엔진과 6단 DSG(듀얼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됐다. 색상은 우라노 그레이, 퓨어 화이트, 리플렉스 실버, 블랙 오크 브라운, 아틀란틱 블루, 딥 블랙 등 총 6가지다.

파사트는 1973년 첫 출시 이후 전세계 2200만대가 팔렸다. 파사트GT는 유럽형 8세대 모델이다.

슈테판 크랍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파사트는 지난 40여 년간 유럽 시장에서 프리미엄 중형 세단의 기준을 제시해왔던 모델”이라며 “가장 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중형 세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기존 차량서도 ‘카카오 I’ 만난다

‘서버형 음성인식’ 출고 후에도 적용
말 한마디에 목적지·맛집 등 똑똑
향후 업데이트로 모델 확대 계획



기존에 출고된 현대·기아자동차 차량에서도 음성인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카카오 I(아이)’의 음성 엔진을 기반으로 현대·기아자동차와 개발한 ‘서버형 음성인식’ 적용 차량이 기존 출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현대·기아차 멤버십 사이트인 블루멤버스와 레드멤버스에서는 1일부터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서버형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포함됐다.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이 기존 출고 차량에도 확대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네시스 G70에 첫 적용 이후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서버형 음성인식은 카카오의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의 음성 엔진을 활용한 일종의 커넥티드카 기술이다. 한 단계로 간소화한 ‘원 샷’ 방식의 음성인식을 통해 목적지 검색과 맛집, 관광지, 정비소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음성인식 기능은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음성인식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장소를 말하면 사용할 수 있다. 가령 버튼을 누르고 “길 안내 현대자동차 본사”처럼 ‘길안내 + 상호명’을 말하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목적지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 외에도 길안내+완전한 주소, 길안

내+00 주변 맛집, 길안내+00 근처 커피숍 등 다양한 방식의 음성 명령도 인식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 카카오 I는 다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업데이트를 통해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현대차 모델은 ▲i30 ▲아반떼 ▲쏘나타 뉴라이즈 ▲i40 ▲그랜저 ▲코나 ▲아이오닉 PHEV 등이며, 기아차는 ▲K7 HEV ▲스팅어 ▲스포티지 ▲쏘렌토 등이다. 표준형 5세대 내비게이션이 지원되며 모델별 연식 등에 따라 적용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

카카오와 현대·기아차는 이번을 시작으로 향후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 카카오 I가 적용된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9월 제네시스 G70 탑재 이후 12월과 올 1월 ‘2018 맥스쿠르즈’, ‘K5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음성인식 기술을 탑재하는 등 신규 모델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

렉서스 ‘누적 판매 10만대 돌파’ 고객감사 이벤트 ‘풍성’

지난해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수립한 렉서스 코리아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렉서스 코리아는 국내 누적 판매 10만대 돌파를 기념해 2월 한달간 고객 감사 시승회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고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해 수입차 베스트 셀링카 2위인 ES300h·프리미엄 하이브리드 플래그십 LS500h까지 다양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만나 볼 수 있다. 시승은 전국 렉서스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렉서스 코리아는 ES300h의 24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및 현금 구매 시 료 라이프 엔진오일 쿠폰(10년 또는 20만km 엔진오일 및 엔진오일 필터 교환)을 증정하는 구매 혜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렉서스 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1만2603대를 판매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 플래그십 쿠페 LC500h와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플래그십 LS500h 등 잇따라 신차를 쏟아내며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소비자 부담 ‘확’ 줄인다... 부품가격 인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6200여 개 부품 할인, 최대 18%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입차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사후서비스(A/S)에 대한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6200여 개에 달하는 부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수입차 구매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값비싼 부품과 수리비용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 만족도와 부품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4만여 종의 부품 가운데 빈번히 교체가 이뤄지는 6200여개를 선별해 진행한다. 부품 가격을 평균 5% 낮췄던 작년 대비 인하율을 3.7% 추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C클래스(W204, 2007년 출시), E클래스(W211, 2002년 출시), S클래스(W221, 2005년 출시) 등 보증기간이 만료된 일부 차종은 교체 빈도가 높은 소모품(에어필터, 브레이크 디스크 등)과 사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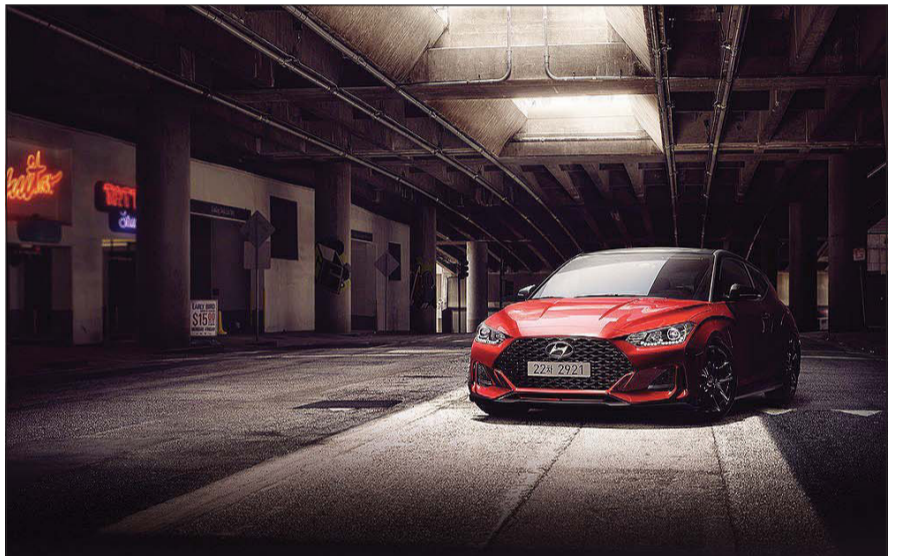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전문 정비사가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리 빈도가 높은 외장부품(범퍼, 휠더, 헤드라이트 등)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인하해 차량을 장기 보유한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했다.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권장 소비자 가격이 평균 약 18% 인하돼 C클래스 11만2200원, E클래스 13만6400원, S클래스 18만2600원으로 책정됐으며 후면 범퍼의 가격도 평균 17% 낮아졌다.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부품뿐만 아니라 의류, 모델 카 등 일부 컬렉션 제품도 평균 11% 인하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7년 만에 ‘첨단기술’로 새단장 ‘신형 벨로스터’ 사전계약 실시

현대차 사전계약 혜택 다양
스마트슈프트 적용·2135만원~

현대자동차가 1일 신형 벨로스터의 주요 사양과 가격대를 공개하고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나선다.

7년 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된 신형 벨로스터는 가솔린 1.4 터보, 1.6 터보 등 2가지 라인업(4개 트림)으로 출시됐다.

판매 가격은 트림별로 가솔린 1.4 터보 ▲모던 2135만~2155만원 ▲모던 코어 2339만~2359만원 가솔린 1.6 터보 ▲스포츠 2200만~2220만원 ▲스포츠 코어 2430만~2450만원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벨로스터 외관은 1세대 특징이었던 센터 머플러와 1+2 도어(운전석 쪽 문 하나, 조수석 쪽 문 앞·뒤 2개)란 비대칭 디자인을 계승했다. 동시에 루프를 낮추고 대형 캐스캐이딩 그릴을 새로 적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내부 디자인 면에서는 비행기 조종석과 비슷한 버킷 시트, 입체적인 원형 계기판 등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신형 벨로스터 전 모델에 터보 엔진과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장착해 주행성능을 끌어올렸다. 특히 1.6 터보 모델에는 현대차 최초로 오버부스트를 적용한 엔진을 장착하고 6단 수동변속기를 조합해 강력한 주행성능을 발휘하도록 했다.

/양성운 기자

실시간 운전상황에 따라 적합한 주행 모드(스포츠, 노말, 에코)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스마트 슈프트도 현대차 준중형 최초로 전 트림에 탑재됐다. 또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FC 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BCW) 등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을 갖췄다. 신형 벨로스터는 이달 국내를 시작으로 올해 북미, 호주 등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이 외에도 현대차는 운전 중에도 원하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형 벨로스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편의사양을 탑재했다. 국내 최초로 적용된 ‘사운드하운드’는 운전자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재생 중인 음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준다.

또 카카오와 기술 및 서비스 제휴를 통해 탄생한 ‘서버형 음성인식 시스템’은 카카오의 통합 AI 플랫폼 ‘카카오 I(아이)’를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검색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여준다.

사전계약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는 레드 캘리퍼,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 오일 등 역동적인 주행을 돕는 튜익스(TUUX) 제동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는 벨로스터와 벨로스터N 실차를 볼 수 있는 체험관도 공개한다.

유·무선 골고루 성장... 8000억 영업이익 “실적 편식 없다”



영업이익이 826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총 매출은 12조2794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고, 단말 판매를 제외한 실질적 매출인 영업 매출은 9조462억원으로 4.2%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1.0% 늘어난 5471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주당 배당금도 배당 성향(당기순이익의 30% 수준)에 맞춰 작년 350원에서 올해 4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사업별로 보면 무선 매출은 LTE 가입자의 증가로 전년 대비 2.5% 성장한 5조570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LTE 가입자는 1214만명으로 전년보다 117만명 늘며 전체 가입자의 92%에 달했다.

유선 매출도 IPTV·인터넷전화·초고속 인터넷의 호조와 데이터 사업의 수익 증가로 전년 대비 6.6% 성장한 3조813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IPTV 매출은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1.8% 급증한 7456억원을 기록했다. IPTV 가입자는 전년 대비 15.6% 증가한 354만명이었다. 'U+tv 아이들나라' 출시와 콘텐츠 강화가 가입자 증가의 원동력으로 꼽혔다.

IPTV·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을 합한 TPS 매출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1조7695억원에 달했다.

데이터 매출은 1조67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성장했다.

이익 증가와 함께 차입금 감소 영향 등

으로 재무구조도 개선됐다. 순차입금 비율은 전년 대비 20.8%포인트 감소한 54.7%였고, 부채비율은 128.1%로 전년 대비 20.3%포인트 낮아졌다.

마케팅 비용은 프리미엄폰 판매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한 2조1710억원이 집행됐다. 무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3만5268원으로 2016년보다 593원 줄었다.

지난해 연간 투자지출(CAPEX) 규모는 1조1378억원으로 전년보다 9.4% 줄었다.

4분기 실적만 보면 매출은 3조32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3억원으로 9.2%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1356억원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IPTV,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홈미디어사업과 5G 등 신사업에 집중해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 100만 가구를 달성한 홈IoT는 올해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기업용(B2B) 시장에서는 NB-IoT(협대역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 CFO(최고재무책임자) 이혁주 부사장은 “AI, 5G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가며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당기순이익 11.0% 늘어 5471억
IPTV 매출은 7456억 원 기록
“AI·5G 활용 상승세 이어갈 것”

LG유플러스가 지난해 8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LG유플러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8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1일 지난해 연결 기준

SK이노베이션 패럴림픽 참여선수들에 기부

SK이노베이션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 캠페인 열기를 모아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대회' 참여선수들에게 성금을 기부한다.

1일 SK이노베이션은 “이 광고가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다”며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전환시키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SK이노베이션은 공식 정유 부문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광고를 포함한 SK이노베이션의 응원 캠페인은 동계 올림픽 주요 종목인 스케이트, 봅슬레이, 스키, 아이스하키 등 여러 종목을 ‘빠르기’ 관점의 정보전달 개념으로 묶어 관심도를 높이는 동시에 동계올림픽을 응원하는 공공성에 주안점을 뒀다.

기업 광고 캠페인을 통해 기부를 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SK이노베이션의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이매틱스 아트’ 방식의 캠페인 누적 조회수와 연계해 발달장애아동의 음악활동 지원에 4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캠페인을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시점까지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다. 동계올림픽 종료 시점의 누적조회수를 연계해 기부금액을 결정하고 유관단체를 통해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선수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SK이노베이션의 캠페인 영상은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

아프리카서 ‘LG 이노페스트’ 2018 첫 개최

중동아프리카 프리미엄시장 공략
LG 시그니처 등 전략제품 소개

LG전자가 올해 첫 ‘LG 이노페스트’ 개최지로 중동아프리카를 찾았다. 초(超)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 등을 앞세워 신형시장인 중동아프리카의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케이프타운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LG 이노페스트’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LG 이노페스트는 LG전자 고유의 지역 밀착형 신제품 발표회로, 주요 거래선과 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LG전자 중동아프리카 지역대표 차국환 부사장을 비롯해 64개국에서 온 주요 거래선 및 외신기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사측은 “올해 첫 ‘LG 이노페스트’ 개최지로 아프리카를 선택한 것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발표한 ‘아프리카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해



LG전자 중동아프리카지역대표 차국환 부사장(앞줄 가운데)이 현지 거래선 관계자들에게 제품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3.4%에서 올해는 4.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LG 시그니처를 비롯해 프리미엄 중심의 올해 전략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LG 시그니처는 ▲기술 혁신으로 이룬 압도적인 성능 ▲본질에 충실한 정제된 디자인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직관적인 사용성을 갖춘 LG전자의 초프리미엄 가전으로 올레드 TV, 세탁기, 냉장고, 가습공기청정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모두 높인 트루프 건조기 ▲두 번 노크하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독자 개발한 화질집 ‘알파9’을 장착해 보다 완벽한 올레드 화질을 구현하는 올레드 TV 등 올해 판매할 프리미엄 제품들을 전시했다.

이외에도 LG전자는 고효율, 고성능, 저소음 등에 탁월한 인버터 기술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인버터 기술은 올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는 가전제품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LG전자는 중동아프리카에 이어 유럽, 아시아, 중남미에서 연내 순차적으로 ‘LG 이노페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대우위니아 IoT 에어컨 ‘둘레바람’ 예약 시작

대우위니아는 오는 4월 9일까지 사물인터넷(IoT) 기능과 ‘둘레바람’으로 냉방 만족도를 높인 ‘2018년형 위니아 에어컨’의 예약판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약판매는 2018년형 위니아 에어컨의 ‘둘레바람’ 라인과 ‘웨이브(WAVE)’ 라인, 벽걸이형 에어컨 등이다.

행사 대상은 전국 대우위니아 전문점 ‘위니아 답채 스테이’와 하이마트·전자랜드 등 양판점, 각종 할인점 및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 구매고객이다.

대우위니아는 예약자에게 구매 모델별로 신제품 가습공기청정기와 드럼세탁기(12kg) 등의 사은품과 모바일 상품권 등을 포함 최대 6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둘레바람 스탠드형 에어컨 프리미엄 모델 구입시에는 모바일 상품권 최대 35만원 또는 가습공기청정기를 증정한다. 벽걸이에어컨이 추가된 19평 스탠드형 에어컨 프리미엄 모델 구입시에는 모바일 상품권 50만원과 드럼 세탁기 중 선택하면 된다.



2018년형 위니아 에어컨. /대우위니아

가전양판점에서 예약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증정한다.

오는 4월 9일까지 행사를 통해 에어컨을 구매하면 4월 30일까지 제품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현대위아 숙식·스터디 가능한 직원복지시설 ‘이룸재’ 오픈

현대위아가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 종합복지시설 ‘이룸재’를 오픈한다.

현대위아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이룸재에서 ‘현대위아 복지관 이룸재 준공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룸재는 기숙사·교육장·북카페와 함께 어린이집이 있는 멀티플렉스형 직원복지관이다.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총 19,612㎡(약 6000평)에 달한다. 준공식에는 김경배 현대위아 사장과 손성환 현대위아 노조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위아는 이룸재에 400여명의 임직원이 동시에 머물 수 있는 최신식 기숙사 210실을 마련했다. 창원 지역에 연고가 없는 임직원과 출장자는 이룸재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이룸재는 교육장으로도 활용된다. 200명 이상의 임직원이 한 번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354㎡(107평) 크기의 다목적홀을 만들었다.



현대위아 김경배 사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지난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위아 직원복지관 ‘이룸재’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테이프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위아

142㎡(43평) 규모의 교육장 두 곳과 직원들의 스터디 모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43㎡(13평) 규모의 토론실을 네 곳 마련했다.

오는 3월에는 이룸재에 ‘현대위아 어린이집’이 문을 연다. 어린이집은 만 1~5세의 영유아 총 49명과 교사 6명으로 구

성된다. 어린이집 운영은 전국에서 100곳 이상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한솔 어린이보육재단이 맡는다. 내부는 친환경 소재를 대폭 적용해 구성했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학부모들이 보육 상황을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운 기자 ysw@

“고혈압 등 보험 사각상품 개발... ‘퍼플오션’ 만들 것”

(레드+블루오션)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간담회

학계·전문기관과의 협업 확대 연내 IFRS17 통합 시스템 구축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1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그간 통계와 분석능력 부족으로 개발되지 못했던 보험상품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업계에 ‘퍼플오션’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퍼플오션은 치열한 경쟁 시장인 ‘레드오션’과 경쟁자가 없는 시장인 ‘블루오션’을 조합한 말이다. 기존의 레드오션에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2018년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드는 경영전략을 퍼플오션 전략이라 일컫는다.

성 원장은 또 “학계나 전문기관과의 협

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 보험 대상의 위험도를 제대로 파악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며 “일반손해보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퍼플오션이 확

고히 정착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대와 함께 고혈압 합병증 모델(2018년)과 간질환 및 심장질환 예측 모델(2019년) 등 개발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전문 예측 모델이 개발되면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특화상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생한 지진 피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관련 평가 모델도 개발에 나선다. 향후 농민들을 위한 농작물 보험이나 주택 및 상업시설을 위한 거대 재해보험 개발에도 평가 모델을 활용할 계획이다.

연내에는 새 보험회계기준 IFRS17 통합 시스템(ARK) 구축도 마무리한다. 오는 2021년 시행될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원은 지난 2015년부터 10개 보험사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보

험부채평가뿐 아니라 회계결산까지 가능한 ARK시스템 개발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하고 테스트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보험사에 이를 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 외 일반손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망·상해·질병·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등 다양한 참조손해보험요율을 마련하여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산정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업체별 위험관리 수준 평가가 어렵고 대형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어 상품 판매가 부진했던 사이버보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업체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이버위험을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성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일반손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IFRS17 구축도 전력을 다해 하반기부터 순차적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봉준기자 bj35sea@metroseoul.co.kr

NH농협금융, 베트남 등 동남아 진출 물꼬

아그리뱅크와 무계좌 송금서비스 실무TF 구성해 협력 구체화 하기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3일부터 김용환 회장이 글로벌사업모델 구현 등을 위해 일주일 일정으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취임 이후 추진해 온 동남아지역 사업 거점을 둘러보고, 현지의 정부당국 및 재계 그룹들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최대 국영은행인 아그리뱅크(Agri Bank)와의 무계좌 송금서비스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농협은행과 Agri Bank는 30일 본 서비스를 개시했다.

김 회장은 쯘 응옥 칸 회장 등 Agri Bank 그룹 경영진과 별도 면담을 하고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자회사들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조만간 양 그룹은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험, 증권, 리스 등 전자회사를 대상으로 인력연수, 사업 제휴, 지분투자 등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지주 본사. /농협금융지주

또 김용환 회장은 베트남 증권위원회 판 반 황 부위원장을 만나 향후 NH투자증권 현지법인 등을 통해 베트남 증권위원회 프로젝트에 적극 지원 및 협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얀마에서는 현지 재계 최대그룹인 HTOO그룹과 농기계 할부금융, 종자사업 등 다각적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그룹은 먼저 HTOO그룹 계열사인 AGD뱅크와 농협은행 현지법인인 농협파이낸스 미얀마가 공동으로 농기계 할부금융 서비스를 현지에서 제공

키로 했다. 농협금융은 국내 농기계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 농기계회사를 본 협력 사업과 연계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인 농우바이오의 현지법인과 HTOO 그룹간 종자사업 협력을 추진했다. 농우바이오가 개발한 당근 종자를 HTOO 관련사와 현지 관계당국이 테스트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HTOO그룹의 판매망을 통해 미얀마 현지 제공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키로 했다. 양사는 초기 협력을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유지, 곡물, 기타 채소 등으로 종자사업 협력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이 현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이우 푹 우정통신부 장관을 만나 우체국과 연계한 다각적인 금융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김 회장과 트람 이우 푹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8~2022)과 연계해 농협금융과 우체국의 금융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우정통신부에서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농협금융에서는 사업모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이동빈 수협은행장(가운데)이 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리테일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일간 전 영업점을 돌며 현장경영을 했다. /Sh수협은행

“올 ‘중견은행’ 성장... 시장 선도할 것”

이동빈 수협은행장 취임 100일 전국 126개 영업점 ‘현장경영’

이동빈 수협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올해 목표인 ‘리테일 금융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 영업점을 돌며 100일간의 현장경영을 마쳤다.

Sh수협은행은 이동빈 행장이 취임 후 전국 126개 전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 고객을 만나는 ‘현장경영 100일 대장정’을 실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행장은 지난해 10월 25일 취임 일성으로 ‘리테일 금융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올 한 해는 Sh수협은행이

가진 자산과 역량을 십분 활용해 내실 있고 알찬 중견 은행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중견 은행 중에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일등 은행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 영업점을 방문했다. 리테일 금융의 핵심인 고객기반 증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업 현장의 고객접점 서비스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현장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난 13일에는 ‘중견 은행 일등 은행’이라는 수협은행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올해 경영목표를 직접 프리젠테이션하기도 했다.

/채신화 기자

“금연·다이어트 하고 보험료 할인 받으세요”

금융꿀팁 200선

건강개선 서류 제출면 최대 20% 납부 힘들 경우 ‘감액제도’ 활용

#. 작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쓴 A씨는 담배를 끊고 꾸준히 운동을 해 왔다. 그 결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많이 줄어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했더니,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건강제 할인특약을 이용하면, 건강 상태가 나아지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벅하다면 ‘감액·완납제도’를 통해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꿀팁 200선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 가입 시보다 나아지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제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나아지면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약 가입 후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가입자도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장기계약인 만큼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높을 수 있도록 펀드 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가령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 투자하고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식이다.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 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힘들 경우엔 보험료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감액제도는 보험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다.

/채신화 기자

KB국민은행 ‘리브톡톡’ 업그레이드

KB국민은행은 1일 메신저 기반의 차세대 뱅킹 플랫폼 ‘리브톡톡(Liiv Talk Talk)’의 서비스를 강화한 버전을 오픈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금융비서 역할을 하는 ‘톡톡이’는 입출금 계좌, 카드 내역에 더해 개인이 보유한 펀드의 계좌 정보 및 수익률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대출 거래내역 및 적용금리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메신저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앱 구동 속도와 전송 속도, 단체 대화방 메시지 처리 기능 향상에 주력했다. 사내 메신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를 위해 한 번에 300명의 친구에게 보낼 수 있는 ‘쪽지’ 기능과 일정을 공유하거나 상대방이 쪽지를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

는 기능도 추가했다.

리브톡톡은 메신저 창에서 채팅을 통해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고 톡톡이라는 금융비서와 대화하듯이 은행거래를 하는 한편, 목소리 인증과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한 대화형 뱅킹 앱이다.

상대방의 대화채널을 깨우는 노크(Knock), 똑똑한(Wise) 금융도우미, 대화형 서비스(Talk)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톡톡은 메신저라는 정체성에 맞게 앱 구동 속도, 메시지 처리, 자료 공유 등의 기본 성능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챗봇 등 차세대 기술과 연계하여 다양한 업무 확장이 가능한 대화형 뱅킹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중권 다이제스트



신한금융투자
중소형주 투자 펀드 판매

신한금융투자는 '플러스 텐배거중소형주 목표전환형 펀드'를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플러스 텐배거중소형주 목표전환형 펀드'는 이익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나 향후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발굴해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운용된다. 또한 단순히 매수 후 보유 전략이 아닌 최적의 투자타이밍 포착을 추구해 기업의 매출 및 이익 변화시점의 타이밍에 매수하는 것을 추구한다. 즉 이익 성장을 동반한 저평가된 종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는 것이 특징인 상품이다. /김문호 기자

시그니처타워... 판교알파돔... 부영을지빌딩... 수송스퀘어...

서울시내 주요 랜드마크 주인 바뀌었다

2000억 이상 대형거래 56% 차지
투자시장 규모도 작년 필적 전망
서울 오피스 공실률 13.3% 기록

지난해 오피스시장이 활황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에 종결이 예상되는 KB국민은행 명동본점 등 다수의 오피스 거래에 더해 펀드 만기가 예상되는 물건까지 고려하면 올 투자시장 규모도 작년 규모에 필적할 전망이다. 국내 기업의 사옥 수요 증가, 풍부한 유동성과 펀드 만기가 맞물리며 활발한 거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오피스 거래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8조8000억원에 달했다.

1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의 '2017년 4분기 오피스 시장



성수 W센터 데시앙플렉스 광장 투시도.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오피스 시장에서는 2조4000여억원의 거래량을 기록, 연간 총 거래 금액이 8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제금융센터(IFC) 3개 빌딩(약 1조8000억원)이 매각되며 역대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던 2016년을 웃도는 수치로 작년 말 약 9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KEB하나은행 명동본점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히 작년에서 시그니처타워, 판교 알파

리움타워, 부영을지빌딩, 수송스퀘어, 메트로타워 등 2000억 이상의 대형거래가 전체 규모의 56%를 차지했다. 작년 말 서울 주요 권역 프라임 오피스 공실률은 13.3%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5% 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프라임 오피스 임차인 이동은 세컨더리 빌딩에서 프라임 빌딩으로의 이전 수요가 44%로 가장 높았다. 다양한 임대 인센티브 제공으로 업그레йд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방 이전과 센트로폴리스 준공으로 공실률 상승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차인의 높은 권역 선호도, 지속적인 업그레йд 수요 및 공유 오피스 확장 수요 등으로 연내에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작년 상장사, 유상증자 '23兆' 조달... 무상증자는 8.1兆

넷마블게임즈가 2.6조로 규모 커

지난해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23조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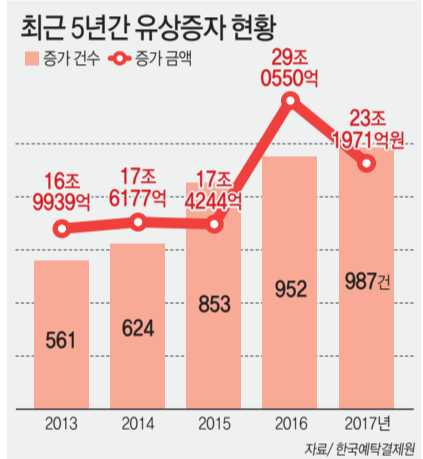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은 987건의 유상증자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금액은 23조1971억원이다. 전년(952건, 29조550억원) 대비 건수는 3.7% 늘었지만 금액은 20.2% 감소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기업이 952건, 10조6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23.4% 줄고 금액은 4.3% 늘었다.

코스닥시장 기업은 312건, 4조973억원으로 각각 10.6%, 15.1% 줄었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건수는 34.7% 늘어난 66건, 금액은 5.6% 감소한 1921억



원이었다. 비상장사(K-OTC, 예탁지정법인)는 건수는 19.5% 증가한 514건, 금액은

40.3% 감소한 8조2454억원으로 집계됐다.

배정 방식별로는 일반공모가 9조8977억원(42.7%)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제3차 배정 9조567억원(39.0%), 주주배정 4조2427억원(18.3%) 순이었다.

증자 규모가 가장 컸던 회사는 2조6617억원을 조달한 넷마블게임즈였다.

다음으로 현대로보틱스(1조7264억원), 대우조선해양(1조6576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1조888억원) 등이 뒤따랐다.

증자 주식수가 가장 많았던 회사는 세종텔레콤(3억주)이고, 증자 횟수는 피디케이리미티드(16회)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무상증자 규모는 123건, 8조179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9.8%와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은 19건, 3조1053억원 ▲코스닥시장은 61건, 4조8992억원 ▲코넥스시장은 5건, 1242억원 ▲비상장사는 38건, 506억원이었다.

주식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117건으로 전체 대상회사의 95.1%를 차지했다.

보통주 기준 증자 주식수가 가장 많았던 회사는 에스맥으로 5988만주(660억원)를 발행했고, 증자 금액이 가장 큰 회사는 현대건설기계로 신주 상장일 증가 기준 9161억원(491만주)을 발행했다.

보통주 기준 무상증자 배정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모헤닉게라지스(3900%)였다. 이 회사를 포함해 배정비율이 100% 이상인 법인은 62개사였다.

/김문호 기자 kmh@



키움증권
7.6% 수익 추구 ELS 공모

키움증권은 세전 연 7.6%의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지수 추가연계증권(ELS)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키움 제754회 ELS'의 기초자산은 각각 일본, 유럽, 중국을 대표하는 닛케이 225(Nikkei225)지수와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지수, 그리고 홍콩항셱(HSCEI)지수이다. 세전 연 7.6%의 수익을 추구하는 만기 3년 상품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모두 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이상이면 자동조기상환되고 세전 연 7.6%의 수익이 지급된다. 만기 시에는 세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모두 기준가격의 80% 이상이면 세전 22.8%(연 7.6%)의 수익을 얻게 된다.

/손임지 기자 sonumji301@

한화투자증권
모바일 수수료 면제 이벤트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3월 30일까지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식 거래수수료를 최대 5년간 면제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 신청고객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축하금 1만원이 지급되며 100만원 이상 주식을 거래하고, 3월 30일까지 종간고를 100만원 이상 유지하면 현금 4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최대 5만원의 투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신청고객은 비대면 계좌개설 익일부턴 5년간 모바일 앱(SmartM, ST EPS)을 통해 거래하는 국내주식(KOSPI, KOSDAQ, ETF) 거래수수료가 면제된다. /김문호 기자



래미안 신정2-1

삼성물산 신정뉴타운서 '래미안' 일반분양

삼성물산은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 2-1구역에서 '래미안 신정2-1(가칭)'을 3월 착공하고, 일반분양에 돌입한다.

래미안 신정2-1은 1497가구 가운데 59~115㎡ 64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신정뉴타운은 계남근린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복합도시로 조성 중이며, 2021년까지 1만1070가구가 거주하는 미니 신도시로 개발된다.

래미안 신정2-1은 신정뉴타운 내 아파트 중에서도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걸어서 이용 가능한 아파트로, 신정네거리역에서 영등포역까지 약 15분, 여의도역까지 약 19분이면 닿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신정네거리역 주변 상권과 제일시장, 이마트 목동점, 홈플러스 목동점, 현대백화점 목동점, 이대목동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편리하다.

운동시설, 산책로 등이 조성된 약 44만㎡의 계남근린공원이 인접해 있다. 신정네거리역 일대에는 쇼핑, 문화시설, 병원 등을 조성하는 역세권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며, 인근 서부트러터미널 일대가 물류·유통·산업이 융합된 곳으로 재정의된다. /이규성 기자

LH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임차인 모집

LH는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인 행정중심복합도시 60가구, 김포한강신도시 120가구, 오산세교지구 118가구 등 298가구의 '로렌하우스'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로렌하우스는 LH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고 민간자금을 유치,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초의 제로에너지 건축기술 적용 단독주택 임대단지다.

고성능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열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한 '패시브 요소'와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액티브 요소' 적용으로 동일 규모 일반 아파트 대비 65% 이상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 적용으로 외벽과 내벽 단열재 간 온도차가 적어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열회수 환기장치를 통해 창문개방 없이 상시 환기와 미세먼지 차단으로 쾌적한 실내 공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사업은 아파트 일반도의 획일화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전원생활, 층간소음 해방과 건강한 육아를 위해 단독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층에게 토지를 매입해 직접 건축하거나, 주

택구입의 경제적 부담 없이 임대로 단독주택 거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기술 적용으로 단독주택의 대표적인 단점인 냉난방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임대조건은 제로에너지 주택보급 확산 및 단독주택 임대시장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임을 감안, 임대기간 4년 동안에는 건설원가 및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되며, 임대기간 이후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여 지속적으로 임대한다.

신청자격은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시니어 또는 노부모부양,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가족형 필자 공급(오산세교에 한함) 등 특별공급 물량이 일부 배정됐다.

청약일정은 1일(목) 공식홈페이지(ht tp://www.rorenhouse.co.kr)를 통한 임차인 모집공고를 시작으로5일(월) 특별공급, 8(목)~9(금) 일반공급 순으로 신청 접수한다. /이규성 기자

화장품업계의 사드 극복기... 럭셔리 제품으로 中 현지화

LG생건 등 中 집중 사업 우려 불식 중국시장 적극 공략으로 매출 증가

지난해 중국의 사드 여파가 K뷰티 산업의 치명적인 불이익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집중한 기업이 위기 속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달성해 눈길을 끈다.

◆LG·애경·신세계 中 '올인'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신세계인터내셔널 등은 사드 극복 분위기에 불구하고 중국 집중 사업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실적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은 지난해 화장품 사업에서 '후', '숨' 등 럭셔리(Luxury)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사업의 호조로 또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이후 관광객 수 급감과 화학제품 사용에 대한 우려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안정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사업 매출은 3조 3111억원, 영업이익은 6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9%, 10.0% 증가했다. 럭셔리 화장품의 고성장으로 영업이익



중국 현지인들이 중국 상하이 뱀바이반 백화점 '후' 매장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LG생활건강

이익률이 18.3%에서 19.2%로 전년 대비 0.9% 포인트 개선됐다.

특히 지난해 '후'는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1조 매출을 돌파, 1조 4000억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국내는 물론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지속 성장한 결과다. 포스트 브랜드 '숨'은 38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숨'은 2016년 4월 말 중국에 진출한 이래 상하이, 난징, 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최고급 백화점에 빠르게 브랜드를 확산, 진출 2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70개 매장을 오픈했다.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등지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후'와 '숨'은 중국에서 현지 고객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매출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오휘', 'VDL'은 지난해 10월 항주에 이어 12월 상해지역 백화점에 추가 입점했다.

애경산업의 경우 지난해 3월 사드 극복

이 본격화 된 이후인 11월에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AGE 20's'(에이지투웨니스), 'LUNA'(루나) 등의 화장품 브랜드를 주력으로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목표였다.

그 결과 지난해 애경산업은 중국 내 화장품 판매액 1000억원을 달성했다. 앞서 애경산업의 중국 매출증가율은 2015년 42%, 2016년 112%로 매우 높은 성장을 보였다. 현재 애경산업의 화장품 브랜드는 중국 내 흡소핀,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2012년 '비디비치'를 인수하며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지난해 화장품 사업에서 매출 627억원, 영업이익 57억원을 달성하며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전환을 이끈 건 면세점 사업이다. 2016년 28억원에 불과했던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154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면세점 매출이 증가한 건 중국 시장을 겨냥한 모델과 상품 전략이 적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미주·유럽도 투자'

반면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진행 중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중국 외에도 아시아, 미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넓혀온 결과 비교적 부진한 실적을 내놨다.

주요 뷰티계열사 실적을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의 매출(5조 1238억원)이 9% 감소했고 영업이익(5964억원)은 30% 줄었다.

이 중 해외사업은 아시아 매출을 제외하면 다 적자를 모면하지 못했다. 전년 동기 대비 아시아 매출(1조 7319억원)은 10% 성장했지만 북미 매출(529억원)은 1% 감소했고 유럽 매출(357억원)은 47%나 줄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미국 세포라 매장에 라네즈를 론칭하고 이니스프리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을 오픈하는 등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또 프랑스 파리의 대표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에 설하수를 국내 브랜드 최초로 입점시켰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올해도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에뛰드하우스가 2월 쿠웨이트, 3월 두바이에 첫 매장을 오픈하며 중동시장 공략에 시동을 건다. 3월에는 라네즈가 호주 세포라에 입점하며, 마몽드는 미국 뷰티 전문점 ULTA에 1분기 입점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백화점 '큰 손'... 30대 男 > 30대 女

신세계백화점

30대 남성 구매율 첫 여성 추월

신세계백화점의 본점과 강남점이 트렌디한 남성들의 라이프 스타일 습으로 자리잡았다.

여성 못지 않은 패션 감각을 갖추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 하는 30대 남성들이 30대 여성 고객을 넘어 백화점의 핵심 소비계층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명품 장르 남녀 30대 구매 고객 비중을 분석한 결과 30대 남성 구매 고객이 여성 고객을 9.7% 포인트 앞서며 명품 의류와 잡화 소비의 핵심 고객층으로 자리잡았다고 1일 밝혔다.

30대 남성 고객들의 매출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결혼을 30대 후반까지 미루는 등 가족보다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2016년 본점과 강남점 리뉴얼을 통해 100여개의 남성 럭셔리 브랜드는 물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재킷 브랜드 '볼리올리', '몽클레르' 등 남성 전문관을 통해 '최초', '단독'으로 선보인 브랜드와 상품들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남성 분더샵 매장 전경.

신세계백화점

앞세워 지난해 27.7%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본점 6층에 선보인 아크네 남성 매장은 아시아 최초 남성 단독 매장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어 지난 8일 신세계백화점은 본점에 루이비통 2018 S/S 컬렉션을 단독으로 공개, 당일 매출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배재석 신세계백화점 패션담당 상무는 "자기 주도적인 소비와 유행에 민감한 30대 남성 고객들이 의류, 신발 뿐

아니라 반지 등 액세서리·소품에 구체적인 관심을 갖게 되며 남성전문관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며

"백화점 내 큰 손으로 자리매김한 남성 고객들을 잡기 위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도 남성 단독 매장을 앞다투어 출점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오는 4일까지 8층 이벤트홀과 브랜드 본매장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대전을 열고 30대 남성을 공략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올리브영, 최대 39% 할인 '그루밍 빅매치'

다양한 가성비 좋은 기획세트 선배

올리브영은 2월 한 달간 남성 고객을 위한 '그루밍 빅매치' 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리브영의 남성화장품 매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발렌타인데이를 비롯한 입학식·졸업식 등의 기념일이 많은 2월을 맞아 남성만을 위한 뷰티 제품 대전을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남성화장품을 최대 39%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가성비 좋은 기획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행사는 편안함과 섹시함의 두 가지 콘셉트로 구성된 남성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제품을 보다 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루밍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편안한



남자를 위한 관리템'에서는 스킨케어, 면도용품, 향수등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기획세트에 구성했다. 반면 '섹시한 남자를 위한 관리템'에서는 색조 및 헤어케어, 남성 제모용품 등의 이색 제품을 추천한다.

참여 브랜드로는 보타닉힐보 아이디얼포뎀, XTM스타일옴, 불독, 다슈, DTRT, 미프, 우르오스, 보난, 에보셰이브, 클린, 벤츠 등이 있다.

김유진 기자

'쁘띠 미니' 등 밸런타인데이 시즌 신제품 출시

크리스피 크림도넛 14일까지 한정 판매

크리스피 크림이 밸런타인데이 시즌을 맞아 사랑스러운 신제품 '쁘띠(Petit) 미니' 및 '수제 초콜릿 세트'를 한정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2월 14일까지 판매되며, '가심비'와 '소확행' 트렌드를 반영했다. 한입으로 프리미엄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맛과 화려한 비주얼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구성했다.

먼저 '쁘띠(Petit) 미니' 3종은 미니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위에 초코크림과 다양한 견과류를 토핑한 '쁘띠초코'와 땅콩크림과 각종 견과류를 토핑한 '쁘띠 피넛버터', 스트로베리 크림이 돋보이는 '쁘띠 스트로베리'이다. 가격은 각각 1500원이다.

더불어 '수제 초콜릿 세트'는 한입 크기로 즐길 수 있는 3가지 도넛모양 초콜릿으로, 진한 초콜릿에 코코아의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초코 미니도넛'과 화이트 초콜릿에 초코크림을 드리즐한 '화이트 미니도넛', 스트로베리가 앙증맞은 '하트 미니도넛'이다. 가격은 6개입 6000원, 9개입 9000원으로 구매 가능하며 더즌류 구매 시 50%할인 판매한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 관계자는 "2018년 소비 트렌드로 꼽히는 '가심비'와 '소확행'을 즐기는 소비자 니즈에 따라 두가지 모두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선보이는 사랑스러운 밸런타인데이 시즌 신제품과 함께 달콤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인용 기자

세븐일레븐 스마트 편의점 '시그니처점' 확대

지난해 새로운 유통 혁신으로 주목 받았던 국내 최초의 핸드페이(HandPay) 스마트 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의 영역이 확대된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롯데손해보험빌딩(서울 중구) 12층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2호점을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손해보험빌딩은 코리아세븐,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롯데그룹 계열 3개사의 본사가 입주해 있다. 상주 직원은 2000명이 넘는다.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2호점은 약 50평 규모로 최첨단 IT 기술이 집약된 소규모 환경과 카페형 문화 공간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핸드페이, 360도 자동스캔 무인 계산대, 바이오 인식 스피드 게이트, 스마트 CCTV 등 세븐일레븐 시그니처의 핵심 기술이 모두 적용됐다.

또 카페형 문화 공간을 구성해 약 20석의 휴게 공간과 함께 혼밥족을 위한 아이 존(i zone)과 나눔 북스(Books) 코너 등



을 갖췄다.

세븐커피, 도넛, 고구마, 즉석라면 등 차별화 상품으로 꾸며진 푸드 스테이션과 오피스 고객을 타겟으로 한 일코노미 특화존도 구성했다. 결제 수단도 일반카드رو까지 확대됐다.

김유진 기자

2022년부터 약학대 학제 개편... 약대낭인 막는다

편입 대신 신입생... '통합 6년제'

교육부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
편입학·신입학 방안 나와
상반기 중 법령 개정하면
4년 후부터 신입생 선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윌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약학대학 학제개편 공청회에서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 약대 학제개편 추진 방안 발제를 하고 있다. /뉴스1

지금까지 약학대학에 입학하려면 일반 대학에서 2학년을 수료한 뒤 3학년으로 편입학하는 방법 뿐이었다. 하지만 이르면 오는 202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약대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편입학 제도가 자연계열 학생들을 '약대 낭인'으로 내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대 학제개편 방안이 나왔다.

교육부는 1일 서울교육대 에듀윌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약대 학제 개편 방안 공청회를 열고 편입 방식인 '2+4년제'와 신입 방식인 '통합 6년제'의 약대 학생 선발 병행 체제 도입안을 공개했다. 대학들이 자율로 두 가지 신입생 선발방식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약대 학제는 과거 수업연한 4년의 신입생 선발 방식에서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현행 수업연한 6년의 편입생 선발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돼 왔다.

6년제 편입은 일반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친 뒤 약대 3학년으로 진학하는 방식으로 이공계 학생들의 약대로의 이탈, 약대 입시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통합 6년제로 개편 하자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연세대 행정학과 하연섭 교수는 '약대 학제 개편의 쟁점 분석과 방향 탐색' 주제의 발표를 통해 "매년 약대 신입생 1800여 명 중 화학, 생물계열이 1100여명을 차지하고 이런 현상이 10년 동안 지속될 경우 1만 명 이상의 기초과학 인력이 유출됨에 따

른 이공계 등 기초학문 황폐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약대 편입생 중 2학년 이후 후 공백없이 바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8.7%에 불과하고 2년 이상 경과 후 진학하는 학생이 66%에 이르는 등 약대편입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를 병행하는 이유로는 통합 6년제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의 어려움이 있는 대학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이화여대 교육학과 한유경 교수의 진행으로, 성균관대 약학과 이의경 교수, 아주대 의대 임기영 교수, 이화여대 화학나노학과 김성진 교수 등 관련 전문가 6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약학계와 의학계 등 대다수 토론자들은 통합6년제 신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기존 2+4년제와 통합 6년제를 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김성진 이화여대 화학나노과학과 교수는 "현 제도하에서 매년 약대 편입생원의 10배 정도인 1만5000명 정도의 이공계 학생들이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포기한 채 사설학원을 전전하면서 2년 이상씩 PEET시험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대학들이 현행 2+4년제와 통합6년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온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찬성의견을 냈다.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현행 2+4년제는 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의 확대 등 선택권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문제가 있다"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병행 체제의 경우는 2개 학제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고 학제에 따른 학습 수준 편차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통합6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기영 아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발제자가 제안한 대학별 자율선택안은 과도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합 6년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 6년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안은 KEDI 서인영 박사의 정책 연구와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교육부는 이번 안에 대한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고려해 약대 학제개편 추진 방안을 확정된 후 상반기 중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유지상 광운대 총장 취임 "ICT 명문대로"

유지상 광운대 신입총장이 1일 교내 동해문화예술관 소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총장 업무에 돌입했다. 유 총장은 취임식에서 광운대를 ICT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유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총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스마트한 변혁의 리더십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동참해 광운대가 ICT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전략과 지역중심 발전전략인 '글로벌 멀티-유니버시티'도 제시했다. 유 총장은 ▲역량교육 시스템의 재정비 ▲신개념 복지서비스의 실현 ▲효율적 산학협력 시스템의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멀티'의 개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성원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결속도 강조했다. 유 총장은 "모든 정책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소통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중찬 (재)우당장학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젊고 혁신적인 총장이 광운대의



유지상 광운대 제10대 총장이 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광운대

웅비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공감의 장을 만들어 구성된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도 소통하는 광운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유 총장은 총임과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공학 석사, 미국 퍼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광운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정보통신처장, 정보과학교육원장을 거쳐 ICT 정책고객대표자회의 위원, 차세대방송기술협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자문교수, K-쇼핑 시청자위원, ETRI저널 세션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용수 기자

동국대 고교생도 수강하는 '경기꿈의대학'

경기도교육청과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가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에서 고등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특별 강좌를 운영한다.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지난 31일 오후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꿈의대학'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꿈의대학은 경기도교육청 소재 고교 재학생이 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특별 개설 강좌를 듣는 과정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역량을 신장시키는 학생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날 ▲경기꿈의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연계 및 지원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교류



한태식 동국대 총장(왼쪽)과 이재연 경기도교육감이 협약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

및 정보 교환 등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한태식 동국대 총장은 "의·약학, 생명과학,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하는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에서 경기지역 고교생들에게 진로와 진학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35개 공공기관 채용 스타트... "취준생 주목"

신입 정규직 중 68% 이달 채용
공공기관 평균 초임 3514만원
수출입은행 4525만원으로 1위

35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신입직원 채용을 시작한다. 올해 중 신입 정규직 채용은 10명 중 약 7명을 2월에 선발한다.

1일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35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입 정규직 1365명의 68%에 달하는 908명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2월 중 마감할 예정이다. 채용형 인턴 등 1052명 가운데 약 절반인 426명도 이달 중 채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82명 규모로 신규 채용을 실시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110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101명)

등의 기관에서 000명 단위의 신규채용을 진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52명) ▲한국가스안전공사(44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0명) 등 21개 기관에서는 00명 단위 채용을 진행한다. 이들 기관에서 올해 통틀어 채용하는 신입 정규직은 1365명으로, 그 중 이 달에만 908명의 채용이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진행한 신규 채용은 물론, 현재 선발 중에 있는 인턴 채용 180명에 더해 이달 내 체험형 인턴까지 26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수출입은행(100명) ▲중소기업진흥공단(50명·2월과 7월 채용 합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50명·2월과 4월 채용 합산) ▲한국정보화진흥원(15명)에서도 2월 중 체험형 인턴을 선발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달 21명의 채용형 인턴을 모집해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들 35개 기관의 평균 초임은 3514만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이 4525만7000원으로 초임 1위를 기록했고,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451만3000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324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300만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초임 수준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공공기관 구직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이라며 "이들 기관의 정규직 신입채용이 2월 중 많이 풀려있는 만큼, 희망 구직자는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를 면밀히 참고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할인된 온누리 상품권으로 설 준비하세요"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10% 싸게 살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2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2월1일부터 14일까지 할인율을 5%에서 10%까지 확대

해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할인규모는 전체적으로 2500억원 어치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중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신한·부산·경남·대구·전



북·광주은행에서 취급한다. 한편 중기부는 전통시장 판매촉진을 위해 글로벌 명품·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200곳에서 '설맞이 그랜드세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공유숙박 플랫폼 소비자 불만접수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유형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	불완전계약이행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기타*	계
건수(비율)	137(70.6)	34(17.5)	12(6.2)	11(5.7)	194(100.0)

*불실·도난·안전 등.

/한국소비자원

공유숙박 소비자 불만 급증... '위약금 주의보'

소비자원 4년 간 불만건수 3배 늘어
숙박료 전액 위약금으로 부과하기도

온라인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방, 빈집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숙박을 유상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2014~2017) 접수된 총 194건의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담 건수(108건)가 2016년(36건) 대비 3배나 급증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 34건(17.5%),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12건(6.2%)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불만접수는 국외가 130건(67.0%)으로 국내 64건(33.0%)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외는 일본(56건·43.1%)이 가장 많았다. 미국(21건·16.2%), 독일(7건·5.4%), 프랑스(6건·4.6%)가 뒤를 이었다. 국내는 제주(23건·35.9%), 부산(10건·15.6%), 서울(8건·12.5%)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을 살펴보면 '일만', '엄격' 등으로 구분된다. 취소 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한 뒤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 않았다.

/김원진 기자 ujin6326@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한순간도 놓칠수 없는 17일 간의 축제



메달 결정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일정 (2018. 02.09~25)

Table with columns for date (02.08 to 02.25) and rows for various sports including figure skating, speed skating, curling, alpine skiing, biathlon, luge, and skeleton.



문화행사 (날마다 문화가 있고 축제가 있는 문화올림픽)

Map of PyeongChang Olympic Plaza and Gangneung Olympic Park with various event locations and icons.

Table listing cultural events, venues, and times for the PyeongChang Olympic Plaza and Gangneung Olympic Park.

교통정보 (평창 동계올림픽 교통안내)

Map showing transportation routes, parking areas, and key locations for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평창올림픽을 더 알차게 즐기기

Checklist and information for Olympic spectators, including items to bring and prohibited items.

Map of Gangneung Coastal Area with details on bus routes and parking for the Gangneung 2nd Bus Terminal.

Information about the PyeongChang Olympic App, including download instructions and features.

삼성전자, 케냐 난민촌에 쿡스토브 1만대 공급



케냐 몸바사 인근 빈민촌 주민이 지난해 11월에 지급받은 저탄소 쿡스토브로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삼성전자

저탄소 친환경 바이오에탄올 사용

삼성전자는 케냐의 유엔난민기구가 관리하는 카쿠마 지역의 난민캠프에 저탄소 친환경 쿡스토브 1만대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케냐 몸바사 인근 빈민촌에 쿡스토브 1만대를 공급한 후 두 번째 지원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난민캠프인 카쿠마 캠프는 약 18만5000명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다.

쿡스토브는 제당공장에서 버려지는 폐당밀을 발효해 얻은 바이오에탄올을 연료로 활용해 숯보다 열 효율을 6배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케냐에서는 대부분 숯으로 음식을 조리하는데, 숯을 만들기 위해 숯 무게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나무가 벌채돼 케냐 내 숲의 비율이 급격히 줄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삼성전자는 케냐에 총 2만대의 친환경 쿡스토브를 보급했다.

친환경 쿡스토브 보급 사업은 노르웨이 기업 '그린 디벨로프먼트'와 협력해 현지 인력을 채용해 현지 고용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의 마카니 교육 커뮤니티 센터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지원하는 '스마트스쿨'을 개소한 바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소상공인연합회,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합심

음식점,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서비스 강화와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본격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강원도 강릉 일대에서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한 소상공인 서비스 강화 선포식 및 공정거래 준수 캠페인'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강원도를 찾는 전세계인들에게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홍보대사라는 자세로 친절하고 서비스와 공정거래를 통해 새로운 한류를 써내려가며 올림픽 성공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최 회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난달 31일 진행된 가맹 계약 체결식에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가운데)와 미얀마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엘라이언스의 민 조 디렉터(오른쪽 두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탐앤탐스

탐앤탐스 내달 미얀마 양곤공항 1호점 오픈

탐앤탐스가 미얀마에 진출한다. 탐앤탐스는 지난달 31일 미얀마의 '미얀마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엘라이언스'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탐앤탐스는 이번 계약으로 오는 3월 미얀마 양곤 공항에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미얀마는 한국의 국토 면적 6배에 달하는 국가로 약 6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해 시장성이 높다.

특히 양곤은 미얀마의 옛 수도이자 최대 상업도시로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계속되고 있다. 탐앤탐스 매장이 들어서는 양곤 공항은 미얀마 내 공항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미얀마 최대 공항으로 유동인구가 많다.

탐앤탐스와 계약을 맺은 '미얀마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엘라이언스'는 미얀마의 중견 제약 기업이다. 미얀마 내 한류 열풍과 국가 경제의 성장, 중상위 소득계층의 소비 지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향후 한국 F&B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친인척들이 태국에 유학하며 경험한 탐앤탐스의 독창적인 베이커리와 다양한 음료, 24시간 오픈 등의 고유한 맛과 서비스가 탐앤탐스와의 계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우리銀, 부동산 플랫폼 '위비홈즈' 출시

우리은행은 아파트 단지 정보, 부동산 개발예정 정보 등을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플랫폼 '위비홈즈'를 1일 출시했다. 위비홈즈는 부동산 대출상담 서비스, 청약저축 가입, 이사 견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위비톡, 위비뱅크, 위비멤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매도호가, 실거래가, KB시세, 한국감정원시세 등 다양한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에 따른 아파트 가격 변동 내용도 그래프로 제공한다. 비즈니스모델로 특히 출원된 '부동산 개발 예정 정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대형 상업시설 개발, 지하철역 신설 등 향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도 서비스한다.

또 위비홈즈를 통해 검색된 아파트는 위비톡을 통해 즉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채신화기자 csh9101



신점[神占] 운세 2월 2일 (음 12월 17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p> 쥐 60년생 좋은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72년생 용기가 없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84년생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나중에 후회 합니다. 96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p> <p> 소 61년생 매사 가족과 의논하세요. 73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85년생 일에 실패가 많으니 일을 구해도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97년생 서두르면 눈앞이 보이지 않습니다.</p> <p> 호랑이 50년생 뜻밖의 손실이 생겨 이루지 못하니 안타깝습니다. 62년생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해가 있습니다. 74년생 주변을 잘 챙기세요. 86년생 좋거나 나쁘지 않고 대체로 원만합니다.</p> <p> 토끼 51년생 일에 조금씩의 발전은 있겠습니다. 63년생 자금회전이 어려워 전전긍긍하면서 날을 보냅니다. 75년생 화가 많은 하루입니다. 87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취업이 걱정됩니다.</p> <p> 원숭이 52년생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64년생 복잡한 문제로 마음이 불편 합니다. 76년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88년생 취직하고자 하면 남쪽으로 원서를 내세요.</p> <p> 돼지 53년생 여행을 떠나지 않는 것이 길합니다. 65년생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77년생 주변에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89년생 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p>	<p> 말 54년생 헛된 욕심을 버리세요. 66년생 공연한 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겠습니다. 78년생 남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90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세요.</p> <p> 양 55년생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7년생 건강을 주의하세요. 79년생 중심을 잃지 마세요. 91년생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p> <p> 원숭이 56년생 끝내 이루겠습니다. 68년생 오래 전 병이 재발 할 수 있습니다. 80년생 귀하는 지금 성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92년생 성공이 결정되어 있으니 열심히 추진하세요.</p> <p> 닭 57년생 단 한가지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69년생 여행을 통해 귀하게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을것입니다. 81년생 넓은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세요. 93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p> <p> 개 58년생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면 떠나세요. 70년생 주위의 신뢰를 얻으세요. 82년생 위험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94년생 대 성과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p> <p> 돼지 59년생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겠습니다. 71년생 좋은일이 생깁니다. 83년생 화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95년생 이익을 바라 마음까지 은근히 들게 됩니다.</p>
--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4		9	6	2			
5	7		1				9	
			5					
		5	7		8	2		
3	8		4		9		7	
4	2		9		1			
			6					
	9			8		7	5	
		5	3	7			4	

	3		9		8		4	
4			5		7			6
		2				5		
1	2						3	4
					9			
5	8						1	9
		3		1		6		
9			7		6			3
	5		8		2		7	

스도쿠 정답

8	7	9	6	4	5	1	2	3
5	4	8	1	2	7	6	9	3
6	2	1	5	9	7	8	4	3
9	5	1	8	6	4	2	7	3
4	1	6	2	7	9	8	5	3
2	8	7	4	5	6	9	1	3
1	9	4	7	5	8	2	6	3
7	6	8	1	2	9	4	5	3
5	3	9	6	4	1	7	8	2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희의四季

선택과 집중

아무런 괴로움 없이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길한 일도 있는데 흉한 일만 일어나는 일은 없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 사람의 일이란 흥과 길한 일이 함께 생기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루어진다. 그렇듯 요즘 우리 의식 속에는 일상 속에 만연되어 있는 부조리와 부정부패 등에 대해 원천적인 분노가 잠재되어 있는 듯하다. 희망적이지 못한 것은 그만큼 정치며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지 못한 처사가 많다고 느끼는 것이다. 유달리 공격적이며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저지르니 여러 가지 불신한 일들이 있지만 기질적인 성향에서 성냄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은 물론 건강적인 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런 화를 표출하는 방식도 사실은 다양하다.

우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외롭다.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팔자 구조 중에 충이 많거나 길의 안내자인 인성이 깨지고 자제력을 필요로 하는 관성이 없거나 무력 할 때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이 있다. 여하튼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의 선택과 집중이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타고난 사주와 운세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아주 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 장사를 하고 싶는데 내성적 성격인 남성은 내성적이라는 부분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사주에서 공부를 잘하는 장점을 최대한 끌어와서 써먹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장사에 대해 깊은 공부를 하면 해결 쉬운 길이 보일 것이다. 좋은 것을 놓아두고 나쁜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은 손해만 부를 분이다. 팔자를 분석한다는 것에 대해 사주팔자를 본다 고들 말한다. 사주를 본다면 얼핏 팔자타령이나 한다고들 생각하겠으나 이는 생각의 혼잡에서 오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은 확고한 신념을 설정해 주며 본질을 비껴가지 않게 하는 논리의 학문이다. 논리와 종교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일까. 인간의 삶에 있어 분명 그 역할이 지대함을 부정할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한 것처럼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몸의 영양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니 내일의 희망과 인간의 영적 충만함과 성취를 위한 종교적 신앙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요소 일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사이버 명예훼손



**이 은 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Q: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종종 구하던 20대 학생 A. 어느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나쁜 소문이 자자한 B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유독 B편의점이 구인광고를 자주 올리는 것을 본 터라 A는 게시글에 "구인글이 자주 올라오는 편이니 참고하십시오"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런데 이를 확인한 B편의점 점주가 A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명예훼손죄(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때 A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우선 A가 쓴 댓글이 '명예훼손' 발언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나 가치판단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그런데 A가 쓴

"구인글이 자주 올라오는 편이다"라는 말은 그것만으로는 B편의점 점주에 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인터넷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말한 사안에 대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판 바도 있다.

이처럼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더 어렵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더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나 소비자 대응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행위나, 성형외과 시술 결과에 불만을 토로한 글을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 답변 게시판 등에 올린 사안에 대해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내용을 조금 바꿔, B편의점 점주가 아니라, B라는 ID를 가진 사람이

쓴 글에 A가 "B는 나쁜놈, 바보" 등의 욕을 댓글로 썼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이 경우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또, 달리를 추정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ID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ID가 현실세계의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의 경우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에 쉽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업소나, ID에 대해 약간이라도 불만스러운 투의 글을 게재하면 발끈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적인 글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었다. '사실'을 썼고, '모욕'의 경우 누구인지 특정이 안될 때' 이와 같은 위협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칫 익명성을 이용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쓰거나, 악의적인 글을 쓸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코스콤 신입직원, 저소득가정 주택개선 봉사

코스콤 신입직원들이 지난달 31일 '사촌 자매결연'을 맺은 춘천명월마을 내 저소득 노인가정을 방문, 외벽공사 및 도배, 장판교체 작업 등 노후주택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신입사원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및 동료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코스콤은 밝혔다.

/코스콤

이노비즈協, 2017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정부 고용지원 사업 시 가산점



이노비즈협회가 '2017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스템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인증제로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 기준을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해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과 구인, 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인증 기관은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이미지)를



기관에 뽐냈다. 협회는 이번에 운영계획 수립과 실행, 업무표준화와 매뉴얼 적용, 법규준수 및 윤리경영 수준 등 운영 활동과 인적자원관리 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용할 수 있다. 또 정부고용지원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등 우대 혜택도 받는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014년에 이어 2회 연속 우수기관에 뽑혔다. 협회는 이번에 운영계획 수립과 실행, 업무표준화와 매뉴얼 적용, 법규준수 및 윤리경영 수준 등 운영 활동과 인적자원관리 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

치아손실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나이가 들면 신체나 장기에 각종 질환이 생기듯 치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손실될 위험이 높다. 치아가 손실되면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뇌로 가는 혈류를 떨어뜨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치아의 일부가 없는 부분무치아 환자나 치아가 아예 없는 무치아 환자의 경우 하루빨리 의치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긴 치료기간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는 노년층이 다반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증하듯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50.5%, 이중 28.6%는 의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치아손실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바로 '치주질환'이다. 흔히 잇몸병이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면서 지지해주는 잇몸(치주), 잇몸뼈(치조골), 치주인대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치석과 충치가 주요 원인이다.

치료방법은 염증의 진행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는 '치은염(gingivitis)'의 경우 증상이 비교적 가벼워 조기치료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잇몸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면 잇몸뼈 주위까지 염증이 퍼지는 '치주염(periodontitis)'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치주염 치료는 잇몸을 절개한 뒤 염증 부위를 긁어내는 시술을 시행하면 되지만 치아 뿌리 안쪽 깊은 곳까지 염증이 확산된 경우에는 치아를 잡아줘야 할 잇몸뼈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높아 최악의 경우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염증으로 인해 잇몸뼈가 녹아내린 경우에는 잇몸뼈이식술을 먼저 시행한 후 임플란트를 심거나 틀니를 해야 하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과 같은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이때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임플란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임플란트 전문 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민을신치과 원장



미래에셋생명, 사랑 나눔의 꽃 행사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월 31일 서울 구로구 르노빌빌딩에서 자사 임직원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석해 독거노인과 일대일 짝꿍을 이뤄 직접 꽃바구니를 만들고 노인들의 자택을 찾아 안부를 살폈다고 2월 1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월 31일 서울 구로구 르노빌빌딩에서 자사 임직원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석해 독거노인과 일대일 짝꿍을 이뤄 직접 꽃바구니를 만들고 노인들의 자택을 찾아 안부를 살폈다고 2월 1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동원시스템즈, 한국마케팅프론티어상 수상

동원시스템즈가 1일 한국마케팅학회에서 주최하는 제25회 한국마케팅프론티어대상을 수상했다.

동원시스템즈는 지속적인 사업다각화와 신시장 진출, 중앙기술연구소를 통한 신소재·신기술 개발, 글로벌경영 성과 등을 인정받아 '기술혁신과 B2B 마케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동원시스템즈는 국내 최대 패키징기업으로서, 연포장재부터 캔, PET, 병, 산업용 필름, 알미늄 등 거의 모든 소비재의 포장에 가능한 국내 유일한 종합포장재회사다. 최근에는 소재부문에서 특



허를 받은 탄성부직포 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손, 발, 헤어 마스크팩을 뷰티시장에 선보이기도 했다.

조점근 동원시스템즈 사장(사진)은 "앞으로도 포장재 카테고리 전문 분야에 걸친 차별화된 기술과 품질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동화약품 유광열 신임사장 취임

유광열 동화약품 신임 사장이 1일 취임했다. 유 사장은 취임사에서 "120년 간 대한민국 제약산업을 대표해 온 동화약품의 15대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영광"이라며 "동화약품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포



부를 밝혔다. 유 사장은 경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멤피스 주립대에서 MBA를 수료했다. 질레트코리아, 한국존슨앤드존슨, 이약품 유통업체 지오영 영업총괄 사장 등을 역임했다.

/박인용 기자

인사

- ◆여성가족부 ◇국장급 정보 △정책기획관 최성지 △교육 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황윤정 ◇과장급 승진 △가족문화과장 김성철 ◇과장급 전보 △다문화가족과장 정희진 △권익보호과장 조성균 △권익기반과장 장미경 △교육 파견(세종연구소) 장석준
- ◆한국문화재단 △기획조정실장 김갑도 △문화상품실장 조진영 △한국의집관장 안태욱 △문화유산활용실장 신진라 △문화예술실장 김민영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장 박해수 △미래전략기획단장 안동찬 △경영지원실장 나정희 △감사실장 두혜승
- ◆한국지엠(GM) △기술연구소 부사장 전주명
- ◆NH투자증권 ◇부장 선임 △해외영업부 이왕상 △투자전략부 오태동 ◇부장 전보 △기업분석부 송재학 △센터장 전보 △FIC C리서치센터 강현철
- ◆조달청 ◇국장급 전보 △조달관리국장 김선병 △구매사업국장 강경훈 △서울지방조달청장 변희석
- ◆특허청 ◇과장급 전보 △디자인심사정책과장 구영민 △복합디자인심사팀장 이대진 △기계분석심사팀장 김근모 △전자제품심사팀장 김용훈 △특허심판원 심판관 박재일
- ◆NH농협손해보험 △전략총괄부부장 이익형

- ◆동양생명 ◇임원 선임 △상무부(IT운영담당) 김준영
- ◆KB자산운용 ◇신규 선임 △채권운용본부장 전우 임광택

부음

- ▲ 이안순 씨 별세, 김석균(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장) 씨 모친상 = 1월 31일 오후 8시, 거제 맑은샘병원 장례식장 1층 VIP실, 발인 2월 3일, 010-2589-1184
- ▲ 변지환 씨 별세, 정준호(삼성카드 부사장) · 준영(신한은행 총무로 기업금융센터장) · 경욱(온양한울중학교 교사) 씨 모친상, 홍종욱(개인사업) 씨 장모상 = 1월 3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 2월 2일 오전 9시, 02-2258-5940
- ▲ 이광평 씨 별세, 장병기(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사무소 부읍장) 씨 장인상 = 1월 31일 오후 4시,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일 오전 8시, 043-210-544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 정 규
편집국장 이 정 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

평창행 교통편 궁금하면... 'Go 평창' 앱 터치하세요

경기장별 날씨까지 철저히 파악
'Go 평창' 등 앱으로 교통·숙박까지
편리·신속한 대중교통 체계 마련

동계올림픽은 '날씨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상조건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개막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상 변화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역대 가장 추웠던 동계올림픽은 영하 11도를 기록했던 1994년 릴레함메르(노르웨이) 대회였다. 그러나 평창의 이번 달 예상 체감온도는 영하 14도 내외로 그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 평창올림픽의 키워드 중 하나가 '추위'로 꼽히는 것도 과언이 아닌 이유다.

이렇듯 역대급 추위가 예고된 평창의 날씨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날씨부터 교통까지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준비를 마친 평창올림픽은 손님맞이만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장별 날씨까지... 철저한 예보

기상청은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5일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56명의 동계올림픽 기상지원 과반단을 구성해 각 경기장별 선수·임원·운영



국토의 동서를 가로질러 서울과 강릉을 연결하는 경강선 KTX가 정식 개통한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지역 관계자와 주민들의 환영 속에 서울발 첫 KTX가 강릉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에게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내부망과 연계, 대회종합상황실에 기상상황 모니터링 표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에는 기상항공기를 도입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과 동해 상공에서 첫 번째 관측 비행도 시행했다. 기온과 습도, 바람 등 기상정보와 구름 입자 크기, 모양 등 물리적 특성을 관측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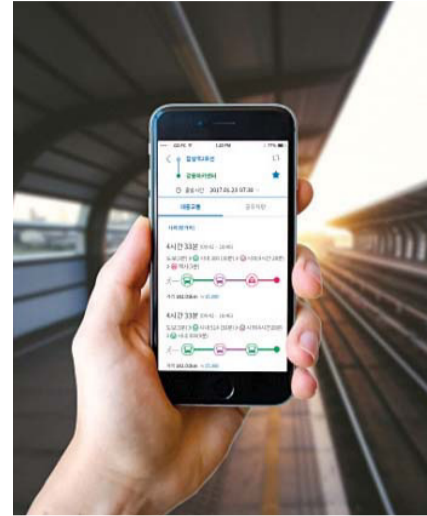
오는 6일에는 추가적인 기상 관측이 시행된다. 그간 기상관측 공백 지역이었던 동해상의 기온, 습도, 바람자료 등 기상

정보들을 올림픽예보관들에게 지원하고 구름특성 관측 자료를 12개국 29개기관이 참여 중인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IC E-POP2018)에도 제공한다.

◆'Go 평창'으로 편리한 교통·숙박

평창올림픽은 역대 가장 콤팩트한 올림픽으로 꼽힌다. 경기장간 거리가 멀지 않고 기차역과도 근접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시스템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대회를 찾는 이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을 제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대회를 성공적



'Go 평창' 앱 실행화면. /KT

으로 이끌기 위해서다. 평창대회가 '대중교통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유다.

경강선 KTX는 이미 개통됐고, 도로 정비도 마쳤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됐고 대체국도인 국도 6호선도 왕복 4차로로 확장됐다.

경강선 KTX의 경우 올림픽 기간(2월 10~24일) 동안 하루 51편(인천공항~강릉 16편, 서울~강릉 35편)이 운행되며 소요 시간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버스는 서울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등 출발·도착지가 다양해 이용이 편리하다.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3시간 내외다.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지에선 모든 진입 차량에 대해 2부제(홀짝수)를 실시하는 등 교통 통제가 이뤄질 계획이라 자차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이를 위해 각종 셔틀버스, 교통 연계 수단 등이 제공될 예정이며,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Go(고) 평창'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됐다.

'고 평창' 앱을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터치만으로 경로 검색이 가능하고, 이동거리와 교통수단, 소요금액 등 이동 방안도 제공된다. 차량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으며 시외·고속버스, KTX 예약앱, 카셰어링앱과도 연동된다.

평창올림픽 공식 앱도 있다. 지난해 11월 1일 '성화봉송 모드' 버전으로 론칭된 공식 앱은 업데이트를 거쳐 '올림픽 모드'로 전환됐다.

'올림픽 모드'는 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대회를 직접 찾는 이들을 위해 경기 일정 및 경기장 소개, 대회 정보는 물론, 숙박과 교통, 관광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거쳐 경기 결과, 메달 집계, 실시간 경기 뉴스, 선수 정보 등 대회 핵심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속도보단 방향이 중요... 함께하는 사람이 소중한해”

스타인터뷰

영화 '염력'

류승룡

배우 류승룡이 3년이라는 공백기를 깨고 영화 '염력' (연상호)으로 관객을 만난다.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7번방의 선물 '명량' 등으로 총무로 부지런히 누빈 그가 잠시 주춤했던 사이 그에게는 '인성 논란'이라는 꼬리표까지 따라붙었다. 류승룡은 개의치 않고, 묵묵히 본인의 길을 갔다. '일회일비'하지 않는 것. 류승룡은 그런 사람이다.

"한국형 토종 히어로물이라는 게 처음 해보는 장르니까 호기심이 많았죠. 연상호 감독님의 기발한 상상력(초능력)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끝난 점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부당함에 맞서는 소시민이 주인공이라는 게 매력적이었죠. 초능력이 생긴 주인공이 부당한 이들과 맞서는 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관객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31일 개봉한 '염력'은 갑자기 초

능력이 생긴 아빠 석헌(류승룡)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빠진 딸 루미(심은경)가 세상에 맞서 상상 초월 능력을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개봉 첫날 26만 4659명 관객을 동원하는 폭발적 위력으로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마블이나 D.C의 히어로물을 보면 멋진 의상을 입고 세상을 구하지만, '염력' 속 주인공 석헌은 혈령한 추리닝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심지어 능력이 몸에 익지 않아 이 건물, 저 건물 부딪히면서 날아다닌다.

류승룡은 "평범한 소시민의 웃음과 희망을 응원하는 영화다. 만약 주인공이 국방부에서 일하는 누군가였다면, 다른 데에 썼겠지만, 주인공이 석헌이기 때문에 생계형 초능력일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석헌은 위험에 처한 딸을 구하는데 초능력을 발휘한다. 지구를 지키지는 않았지만 분명 이 사람한테는 커다란



'염력'으로 3년만에 스크린 컴백 초능력을 쓰는 철부지 아빠 역 시대와 세월을 담은 배우될 것

일일 것"이라고 영화가 가진 메시지를 전했다.

초능력을 소재로 한 영화답게 관객이 봤을 때는 감탄과 탄성이 나오겠지만, 사실 촬영하는 배우들은 연기에 몰입하기 힘들 정도로 웃음 터지는 일도 많았다.

류승룡은 "날아다니는 장면만 와이어 액션이었고, 나머지 장면은 특수효과 소품에 낚시줄을 연결해서 직접했다. 봉고차가 끌려가는 것도, 넥타이가 뱀처럼 움직이는 것도 다 제작진이 직접 한 것"이라며 "극 중 초능력을 이용해 라이터를 잡는 한 장면을 위해 조감독님이 라이터를 30번이나 던져줬다. 발이 공중에 뜨는 장면은 철봉에 올라서서 찍었다"고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전했다.

영화 '불신지옥' 때부터 네 작품에 함께 출연한 심은경에 대해서는 삼촌-조카같은 사이라며 굳이 대화가 필요없이 연기를 통해 많은 느낌을 교감했다고, 상대 배우의 연기력을 극찬했다.

류승룡은 3년 만의 스크린 컴백이 설레고 긴장된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오랜만에 작품으로 관객을 만나지만, 사실은 쉬지않고 촬영 중이었음

도 덧붙였다.

"'염력' 촬영 전까지는 '7년의 밤' 촬영에 매진했죠. '7년의 밤'같은 경우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초고를 받은 작품이에요. 그 아들이 올해 중학생이 됐고요. 오랜 기간 공들인 작품이라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하죠. 그 작품도 3월에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웃음) 그리고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킹덤'도 준비 중이고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배우로서 앞만 보고 달린 류승룡은 '염력'을 촬영하면서 깨달은 점도 있다. 촬영 기간도 소중한 인생 중 일부라는 것. 그래서 매 촬영 때마다 '행복하고 재미있게 하자'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쉼없이 작품을 하다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 나는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인

가?' 공백기간 동안 속도를 내느라고 미처 돌리지 못했던 것들을 신경쓰게 됐죠. 제 안에 따뜻한 마음이 넘쳐야 그것들을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동안 저 스스로 공허하다고 느껴왔거든요. 뒤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동료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웃자고 한 발언('뜨니 변했다')이 류승룡에게 '인성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선물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해명하고 싶지 않았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말인데, 그걸 꼭 해명했어야 했나 싶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영화를 만드는 게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작업이잖아? 사람이 무엇보다 소중한데, 지금도 예전에 만나 공연했던 분들도 만나고, 예능에 출연했던 동료 배우들과도 연락 잘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웃음) 밀고, 당겨주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작품에

시대를 담아내고 세월을 그려내는 배우가 되고 싶고요."

/신원선 기자 tree6834@사친/프레인TPC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5 | 해질 / 17:57

2월 2일

음력 : 12월 17일

수도권 날씨

-7 ~ 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13/2
- 동두천 -12/4
- 가평 -12/3
- 파주 -12/3
- 서울 -7/3
- 양평 -10/4
- 인천 -6/1
- 수원 -8/2
- 용인 -8/2
- 평택 -9/4
- 백령도 -4/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게임·내의·헤드헌터·보안...

전통·첨단기업 어울린 경제성장의 새 심장

역세권 알짜기업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은 지난 1984년 5월 구로공단역으로 개통했다. 역 인근에 한국 수출산업공단이 인접해 붙여진 역명이었지만, IT 등 첨단 벤처기업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디지털산업단지로 변모해 역 이름도 2004년 7월 지금의 새 이름을 얻었다.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 등으로 진입하는 관문이며 상가와 기업이 밀집해 있고 버스과 지하철의 환승센터역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럼 구로디지털단지역의 수많은 기업 중 재무평가와 재직자평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기업은 어디일까.

구직자와 기업에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인에이치알이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대표 기업 중 하나다. 사람인에이치알은 2005년 설립해 현재 관련업계 순방문자 수 1위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공채정보와 취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의 재무평가 총점은 86.6%로 동종업종 상위 3%에 포함된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매출액554억원, 영업이익 128억원, 사원수 380명으로 규모형태 점수는 87.2점으로 나타났다.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안정성은 88.5점으로 집계됐다. 세부지표를 보면 부채비율 8.2%, 당좌비율 405.2%, 신용등급 우수를 보였다. 재무의 양적인 증가율을 보여주는 성장성은 매출액증가율 -19.2%, 자산증가율 11%, 영업이익증가율 25.6%로써 78.4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23.3%), 매출액순이익률(19.3%), 자본금순이익률(15.4%) 등의 지표로 보는 수익성은 92.3점으로 가장 높았다.

사람인에이치알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들이 작성한 재직자평판 총점은 75점이다. 세부항목을 보면 조직문화·분위기 78.3점, 급여·복지후생 76.1점, 근무시간·휴가 75점, 자기성장·경력 73.4점, 경영진·경영이 72.3점을 보였다. 눈여겨볼 답변으로는 65%가 의사소통은 수평적이고, 70%가 사내 직원들 사이가 협력적이라 응답했다. 또한, 사무공간과 휴게공간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80%로 집계됐다. 70% 응답자가 고용 안정성과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했다. 한 재직자는 '쫄고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것이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사람인에이치알	재무평가 86.6%로 업계 3%... 부채 고작 7.2%
넷마블게임즈	재무상태 업계 1%... 직원 94% "근무환경 만족"
BYC	1955년 설립·내의산업 이끌어... 유통망 1600개
오스테오시스	70개국 수출... 성장성 79.9점·수익성 89.4점
시큐브	PG 플랫폼 등 'FIDO' 인증... 성장성은 78.8점

글로벌 게임회사 넷마블게임즈도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재무의 규모형태와 안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1년 설립한 넷마블 게임즈는 모바일과 PC용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총점 86.3점으로 동종업종 상위 1%에 속해 있다. 매출액 1조 731억원, 영업이익 1010억원, 사원수 675명으로 규모형태는 93.5점을 보였다. 안정성은 부채비율 27.6%, 당좌비율 99.5%, 신용등급 양호로써 82.6점으로 집계됐다. 성장성은 89.7점(매출액증가율 22.1%·자산증가율 44.4%·영업이익증가율 29.9%), 매출액 대비 이익률로 평가하는 수익성은 79.2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 9.4%, 매출액순이익률 2.2%, 자본금순이익률 2.0%를 보였다.

이 회사의 재직자평판 총점은 75.8점이었고 세부항목 중 급여·복지후생 만족도가 80.9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사무

공간과 휴게공간 등 사무실 환경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94%를 보였다. 조직문화·분위기는 79점, 자기성장·경력 77점, 근무시간·휴가와 경영진·경영 만족도가 71.1점으로 같은 점수를 받았다. 이 회사의 한 재직자는 "열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에게 추천한다"고 했다.

'국민 내의 기업'으로 잘 알려진 BYC도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위치한 회사다. 재무 규모형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955년 설립해 오로지 이너웨어라는 한길만 걸어오면서 국내 내의 산업을 이끌었다. 원사에서 완제품까지 일괄 생산이 가능한 공정체계를 갖추고 있고 약 1600개의 도소매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재무평가 총점은 82.5점으로 동종업종 상위 3%에 포함되어 있다. 세부항목으로는 규모형태가 93.8점으로 매출액 2,111억원, 영업이익 175억원, 사원수 747명으로 집계됐다.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안정성은 74.4점(부채비율 82.7%·당좌비율 30.3%·신용등급 양호), 재무의 양적인 증가율을 보여주는 성장성은 78.7점(매출액증가율 16.2%·자산증가율

4.0%·영업이익증가율 -19.5%)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8.3%), 매출액순이익률(3.6%), 자본금순이익률(1.9%) 등으로 평가하는 수익성은 83.3점을 보였다.

재직자평판 총점은 75점으로 세부항목을 보면 조직문화·분위기 77.4점, 근무시간·휴가 75점, 자기성장·경력 74.4점, 경영진·경영 74.4점, 급여·복지후생 73.8점 순으로 나타났다. BYC '속옷', '양말', '안정감', '오래됨'이 연상된다고 응답했다.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이 자유롭다는 답변이 71%, 고용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81%를 보였다. 이 회사 한 재직자는 '안정적인 고용과 근무환경'을 장점이라고 했다.

재무 안정성이 높은 기업으로는 의료장비 등 전자기기 제조업체 오스테오시스와 보안솔루션 전문업체 시큐브가 꼽혔다.

오스테오시스는 2000년에 설립했으며 글다공증진단장비, 전자기기,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체로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에 주력한 결과 국내 판매뿐 아니라 약 70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됐다. 재무평가 총점은 84점으로 상위 7%에 속해 있다. 규모형태 74.4점(매출액 162억원·영업이익 24억원·사원수 66명), 안정성 92.4점(부채비율 17%·당좌비율 944.7%·신용등급 양호), 성장성 79.9점(매출액증가율 18.6%·자산증가율 16.3%·영업이익증가율 21.5%), 수익성 89.4점(매출액영업이익률 15.2%·매출액순이익률 20.1%·자본금순이익률 15.3%)으로 조사됐다.

2000년에 국내 최초로 보안운영체제(Secure OS)를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한 보안솔루션 업체 시큐브는 설립 이듬해 코스닥 상장 후 모바일 보안과 전자결제·인증 분야에 R&D 역량을 집중 2015년 11월 국내 PG등록을 완료했다.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큐브 PG 플랫폼과 생체수기서명 인증 기술에 대한 FIDO 인증을 획득했다.

재무평가 총점은 82.3점으로 상위 11%에 포함된다. 규모형태 83.4점(매출액 213억원·영업이익 22억원·사원수 105명), 안정성 86.8점(부채비율 33.9%·당좌비율 329.7%·신용등급 양호), 성장성 78.8점(매출액증가율 8.2%·자산증가율 6.9%·영업이익증가율 113.6%), 수익성 80.4점(매출액영업이익률 10.8%·매출액순이익률 8.4%·자본금순이익률 8.3%)으로 집계됐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자료제공=캐치)

서울시, 전국 최초 '유기동물 긴급보호'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 실시 소유권 이전·치료 후 입양 조치

서울시가 방치동물 긴급구호 체계를 강화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전국 최초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설립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가운머리로 동물 보호자의 사망, 장기입원 등으로 방치될 위험에 노출된 동물을 인수 보호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보호 동물 인수보호제는 혼자 거주하는 동물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사망, 구급, 장기입원 등)로 방치동물이 보호자 없이 방치된 경우에 한해 소유권 이전을 통해 긴급 구호하는 제도다.

인수보호제 절차는 긴급보호 대상 동물 발생 시, 발견 시민이 해당 구청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치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긴급보호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물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받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인계해 동물의 치료·보호가 진행된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해당 동물을 치료한 후 일반 시민이 입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새 제도를 악용해 '동물 유기'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긴급보호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범중 기자 joker@



50플러스 캠퍼스 중부캠퍼스의 아트 가드너 수강 모습. /서울시

50플러스캠퍼스 1학기 수강생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만 50~64세)를 지원하는 50플러스캠퍼스의 2018년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50플러스캠퍼스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춘 50+세대가 인생 후반기를 새롭게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일자리 지

원, 상담과 정보제공, 문화와 커뮤니티 활동 등이 진행되는 복합 공간이다.

기존 서부캠퍼스(은평구)와 중부캠퍼스(마포구)에 이어 올해 문을 여는 남부캠퍼스(구로구)까지 세 곳의 50플러스캠퍼스가 운영 중이다. /이범중 기자



[금융]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고혈압 등
보험 사각상품 개발”
11



[라이프]
전통·첨단기업 어울린
경제성장의 새 심장
Life ‘구로디지털단지’
19



중국에선 ‘仁’, 베트남에선 ‘Tinh’... 한국의 ‘情’ 전하는 전도사

초콜릿 코팅에만 2년... 美 원조 뛰어넘은 글로벌 파이

(문파이)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4 오리온 초코파이 情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1974년 출시된 오리온 초코파이의 CM 송이다. 지난 44년 동안 위로와 용기, 감사를 전하며 소비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뛰어난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러시아, 중국, 베트남, 중동, 미국까지 세계 60여개국에 한국의 정을 전하는 외교관 역할도 하고 있다.

초코파이는 오리온의 독자적인 기술로 탄생했다. 일반 비스킷과 달리 특수한 배합 및 제조 과정을 거친다. 이는 출시 직후부터 모양과 포장 디자인을 베낀 제품들이 쏟아졌지만 오리온 초코파이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세계에서 한 해에만 약 20억 개 이상이 팔리는 인기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제품 개발 과정

1917년 미국 테네시 주의 한 베이커리에서 비스킷을 마시멜로(Marshmallow)로 붙이고 초콜릿을 씌운 문파이(Moon Pie)가 탄생한다. 제품 모양이 보름달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단맛이 강해 우유나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이후 1970년대 들어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생활 문화도 크게 달라졌다. 소비자들이 좀더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과자를 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이 시기에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졌다. 1970년대 초 식품공업협회(현 식품산업협회) 주관으로 미국 등 선진국을 순회하던 오리온 연구소 직원들은 한 카페테리아에서 우유와 함께 나온 초콜릿 코팅 과자를 맛보다가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국내로 돌아와 제품 개발에 나섰지만 시행착오를 겪었다. 연구진은 비스킷에 마시멜로를 짜고 다시 비스킷을 덮고 초콜릿을 입히는 과정을 거쳤다. 마시멜로를 짜는 과정까지는 성공적이었지만 비스킷을 덮는 공정에서 제품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았다. 약 2년여간 실험과 개발을 통해 수많은 시제품을 만들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끝에 1974년 4월 드디어 오늘날의 초코파이가 탄생했다. 문파이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식감이 달랐다. 문파이는 바삭하고, 초코파이는 촉촉하다.

초코파이는 출시 당시 국내 제과업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과자였으며, 차와 곁들일 수 있는 주식 대용의 고단백, 고칼로리를 가진 영양식으로 개발됐다.

초코파이는 상류층을 주타겟으로 고급스러움에 주력했고 패키지 디자인 전략은 초콜릿 제품과 어울리지 않는 ‘스카이블루’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매장 내에 차별화된 대비를 강조, 임팩트 효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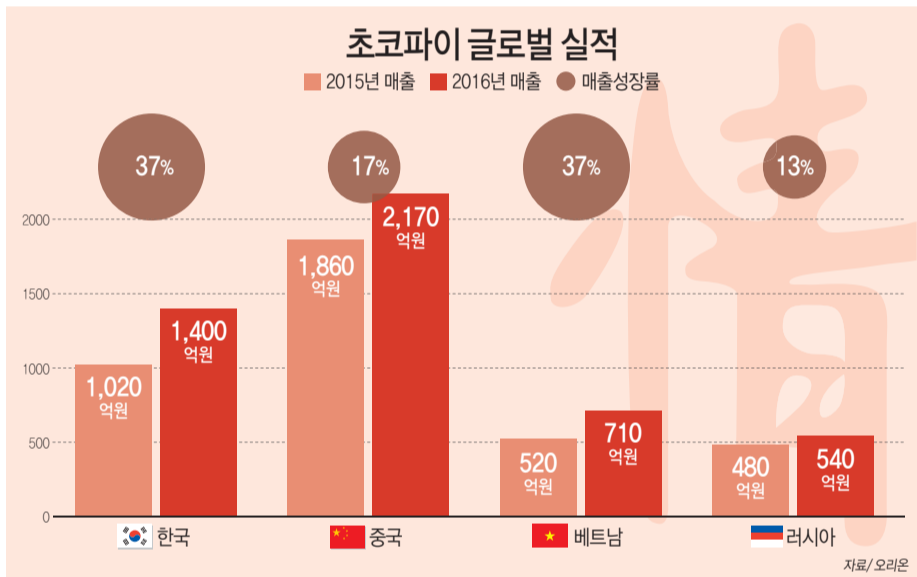
◆초코파이의 변신

초코파이가 그동안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오리온만의 고유한 ‘맛’과 ‘품질’ 때문이다. 하지만 출시 당시의 초코파이와 지금과 똑같은 맛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변화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초코파이는 2015년 10월 가격 인상 없



오리온 초코파이 중국 매장.

/오리온



70년대 미국 순회 중 아이디어 얻어 2년간 개발 통해 촉촉한 파이 출시

최근 초콜릿 늘리고 식감 업그레이드 바나나·딸기·초코칩 넣은 제품도

각 국 정서에 情 접목한 마케팅으로 중국·베트남 등 세계서 사랑 받아

이 개당 무게를 35g에서 39g으로 증량하면서 최근 한결 업그레이드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당시 초콜릿을 약 13% 늘리고, 식감이 더욱 부드럽게 개선했다.

2016년 3월, 오리온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바나나 초코파이情’을 출시했다. 바나나 초코파이는 초코파이 탄생 42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자매 제품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인 바나나를 사용해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식품업계에 ‘바나나’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새로워진 바나나 초코파이는 마쉬멜로우 속에 바나나 생크림이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 봄에는 초코파이 출시 이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계절 한정판인 ‘초코파이情 딸기’를 선보였다. 출시 한 달 만에 날개 기준 누적판매량 1100만 개를 달성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기존 초코파이와 다른 새로운 콘셉트의 ‘초코칩 초코파이情’을 선보였다. 초코칩 초코파이는 빵 속에 오

독독독 씹히는 초코칩과 깊은 풍미의 초콜릿크가 콕콕 박혀 있어 독특한 식감과 진한 초콜릿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수 비결

오리온 초코파이는 한 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개 이상이 팔리고 있다. 초코파이의 인기 비결은 흥내 낼 수 없는 맛에 있다. 수분이 함량이 매우 높은 마시멜로우와 상대적으로 수분이 낮은 비스킷, 초콜릿으로 만들어진다. 마시멜로우 속 수분이 숙성을 통해 비스킷으로 이동하며 초코파이만의 오묘한 식감을 만들어낸다. 수분은 초코파이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드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수분이 많아질수록 미생물에 의한 오염 및 변패, 풍미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오리온은 알코올이나 방부제 성분 없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분의 황금비율을 찾아냄으로써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오리온 초코파이만의 맛과 품질을 지켜가고 있다.

중국 현지 공장을 만들던 1995년 ‘제품에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되기 시작했다. 오리온 생산 제품 전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하고, 수거된 제품 10만 개를 한데 모아놓고 불에 태웠다. 이와 함께 포장 필름 재질을 생산원가가 올라가더라도 제품보호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이 사실이 중국 내 딜러에게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오리온을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하며 급속하게 판매가 늘었다.

1996년 초코파이 개발팀에서는 1년 여 동안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온통 초코파이에만 매달렸다. 최적의 수분 함량을 찾

오리온 초코파이 情 패키지 변천사



기 위해 수송용 메스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파이를 분해했다. 수분의 함량을 10~15%까지 놓고, 미생물의 번식, 식감의 차이를 연구했다. 그렇게 꼬박 1년을 매달렸고, 마침내 최적 수분 함량 ‘13%’를 찾아냈다. 그 결과 방부제나 알코올을 전혀 쓰지 않고도 흑한의 러시아부터 열사의 땅 중동지역까지 6개월 넘게 변함없는 품질과 맛을 유지하는 초코파이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글로벌파이로 성장

오리온 초코파이는 세계시장에서도 매년 큰 폭의 판매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리온 관계자는 “한국인의 감성코드이자 초코파이의 핵심 브랜드가치인 ‘정(情)’을 각 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정서에 접목시키는 현지화 전략이 굳게 잡혀 있던 세계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됐다”고 말했다.

오리온 초코파이를 가장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역시 중국이다. 중국인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바로 인(仁)이라는 점에 착안해 2008년 말부터 하오리여우파이(好麗友·좋은 친구) 포장지에 인(仁)자를 삽입하고 있다. 공감대를 일으키자 중국 고객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다른 제품들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초코파이는 국내 제과 브랜드 중 유일하게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으로 ‘중국 브랜드 파워지수’(C-BPI)에 파이 부문 1위에 등극했다.

베트남에서는 2009년부터 현지어로 정(情)을 의미하는 ‘Tinh’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면서 친근감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